국립국어원 2015-01-29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598-01

한국어교육 문법 · 표현 내용 개발 연구(4단계)

연구 책임자

양 명 희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4단계)"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연구 책임자: 양 명 희(중앙대학교)

연구 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양명희

공동 연구원 이선웅, 고홍희, 이성도, 이지용, 김지연, 박미은, 이나래

연구 보조원 안예림, 주재훈

검색기 개발 이종훈, 신누리

[국문 초록]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4단계)

본서는 2012년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육 내용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의 4단계 결과물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2015년 사업을 개관하며 이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2012년 제1단계 연구에서는 문법·표현 항목의 등급 기준 마련, 문법·표현 교육 내용 기술안 개발, 초급 문법 범주의 중국어·몽골어 대조 연구라는 세 가지 세부 연구 과제를 진행하였고, 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선정된 초급 문법·표현 항목을 정련하고 초급 문법·표현 항목의 문법 교육 내용을 기술하였다. 3단계 연구에서는 2단계에서 선정된 중급 문법·표현 항목을 정련하고,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교육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 사업의 첫째 과제인 문법·표현 항목의 등급별 선정은 국립국어원 주관으로 수행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Ⅱ(2011)"의 등급별 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항목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앞의 두 자료의 항목이 불일치할 때는 한국어 화자 말뭉치(세종 말뭉치 빈도) 빈도, 교수·학습의 실제성(교재 중복도)를 기준으로 등급화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변이형과 관련형은 한 항목으로 묶어 교수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변이형은 형태적 이형태를 지칭하며 관련형은 '-을 수 있다'와 '-을 수 없다'처럼 함께 관련하여 교수하는 것이 효율적인 항목을 가리킨다. 그 결과 초급 89항목(92항목 기술), 중급 113항목이 선정되었는데, 이 항목은 기존의 '한국어 능력 시험'의 항목보다 개수가 약간 적으며 지금보다 쉬운 초급, 중급 항목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과제인 문법·표현 교육 내용 기술안 마련을 위해서는 외국어 문법서 분석과 한국어 교사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교수를 위해 필요한 8가지 교육 정보를 구성하였다. 8가지 교육 정보는 '의미 및 용법, 예문, 도입, 형태 정보, 문장 구성 정보, 제약 정보, 확장, 유사 문법'으로, 이 정보들은 한국어교육의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가공이 가능하다.

이 사업의 셋째 과제는 대조 언어학적 분석이다. 대조 연구는 외국어교육에서 학습자들이 범하는 언어간 전이 오류를 설명해 주며, 교수나 학습 전에 오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준다. 1단계에서는 중국어, 몽골어와의 초급 문법 범주 대조가 이루어졌는데, 2단계부터는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중국인 학습자를 교수하는 데 필요한 도움말을 기술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

올해는 이 사업의 마지막 해로, 이제까지 개발한 초급과 중급의 문법·표현 교육 내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자유롭게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검색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잘못 기술되거나 체계가 맞지 않는 기술 내용을 수정하고 유사 문법과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본 연구의 결과물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한국어교육 내용 연구의 기초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수정과 보완이 거듭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한국어교육 내용 연구, 문법 · 표현, 등급화, 유사 문법, 대조 언어학

[목 차]

제1장 연구 목적 및 범위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범위 ---- 3

제2장 초급,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최종 목록 ---- 5
2.1. 초급 문법 · 표현 항목 ---- 5
2.2. 중급 문법 · 표현 항목 ---- 6

제3장 문법.표현 교육 내용 정비 ---- 8
3.1. 교육 내용 정비의 필요성 ---- 8
3.2. 교육 내용 정비 ---- 9
3.2.1. 예문의 적절성 ---- 9
3.2.2. 형태 정보의 정확성 ---- 10
3.2.3. 유사 문법의 통일성 ---- 12
3.2.4.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 내용 보완 ---- 17
3.2.5. 검색을 위한 어깨 번호 수정 ---- 18
3.2.6. 한국어능력시험과 국제표준모형 등급 비교/이형태 · 관련형 점검 ---- 19

제4장 검색 시스템 개발 ---- 26
4.1. 검색 기능 ---- 26
4.1.1. 검색 시스템 개발의 목적 ---- 26
4.1.2. 검색 기능 ---- 26
4.1.2.1. 검색 관련 기능 ---- 26
4.1.2.2. 검색 외 기능 ---- 29
4.2. 설문 조사 ---- 33
4.2.1. 조사 목적 및 조사 방법 ---- 33
4.2.2. 조사 결과 ---- 35
4.2.2.1. 1차 설문 조사 ---- 35
4.2.2.2. 2차 설문 조사 ---- 38
4.3. 설문 조사 결과의 반영 ---- 40

4.3.1. 기능 관련 ---------- 40
4.3.2. 디자인 관련 ---------- 43

제5장 연구의 의의와 과제 ---------- 46
5.1. 연구의 의의 ---------- 46
5.2. 정책 제안 ---------- 47

[표 목차]

<표 1> 초급 문법 · 표현 항목 ---------- 5~6
<표 2> 중급 문법 · 표현 항목 ---------- 7
<표 3> 유사 문법 항목별 정비 내용 ---------- 13~17
<표 4> 어깨번호 수정 항목 ---------- 18
<표 5> 초급 문법 · 표현 항목 비교 및 대표형 · 이형태 · 관련형 정비 목록 ---------- 19~22
<표 6> 중급 문법 · 표현 항목 비교 및 대표형 · 이형태 · 관련형 정비 목록 ---------- 22~25
<표 7> 설문 조사 내용 ---------- 34

[그림 목차]

<그림 1> 결과 페이지 기본 형태 ---------- 27
<그림 2> 검색 메인 페이지 가나다순 검색 ---------- 27
<그림 3> 검색 메인 페이지 등급별, 범주별 검색 ---------- 28
<그림 4> 검색 결과 페이지 이형태/관련형 안내문 ---------- 28
<그림 5> 최상단 페이지 인기 검색어 ---------- 29
<그림 6> 상세 페이지 상단 ---------- 30
<그림 7> 상세 페이지 하단 유사 문법 ---------- 30
<그림 8> 상세 페이지 하단 사용자 의견 보내기 ---------- 31
<그림 9> 항목 비교표 ---------- 31
<그림 10>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 ---------- 32
<그림 11> 검색 결과 페이지 ---------- 41
<그림 12> 메인 페이지 표현 범주 정렬 ---------- 42
<그림 13> 수정된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 ---------- 43
<그림 14> 인쇄 페이지 ---------- 45

제1장 연구 목적 및 범위

1.1. 연구 목적

1.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어교육의 발전으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이러한 논의에 힘입어 국립국어원에서는 2010년, 2011년 2년여에 걸쳐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단계별로 기능, 문화항목, 어휘, 문법 목록 등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한국어교재, 한국어능력시험(토픽), 국내 및 국외의 교육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도출된 결과이다. 이 연구 결과물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그중 하나는 문법 · 표현 항목을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한 점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1, 2」를 발간한 바 있는데, 이는 사전의 형식을 취한 한국어교육 문법서로 항목별로 교육 단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문법서의 내용만으로 문법 항목을 교육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 이는 한국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는데[1], 한국어교사들은 조금 더 쉬운 문법 설명, 풍부한 예문, 심도 있는 문법 정보 등 가르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문법 내용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어교육학적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한국어 문법교육의 연구 성과가 상당하게 축적된바 이 결과를 문법 교육에 반영할 필요성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개발된 연구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한「한국어 교육 문법 · 표현 내용 개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체계적이고 충실한 문법 교육을 하기 위한 문법 교육 내용을 기술하고, 한국어교육 연구자가 심도 있는 문법 내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문법에 관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현장의 교사들 중에는 이미 심도 있는 문법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겠으나 현장의 다른 교사들과 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이러한 연구 사업이 필요하며, 문법 교육 연구자들에게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문법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도 이 사업은 중요하다 하겠다.

한국어교육 문법 · 표현 교육 내용에 대한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문법 · 표현

1) 본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2013년 두 번의 설문 조사가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어교육 문법 · 표현 교육 내용 개발 연구(1단계)', '한국어교육 문법 · 표현 교육 내용 개발 연구(2단계)'를 참고하면 된다.

교육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 사업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집필 지침을 마련하고 선정된 초급,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교육 내용 개발에 힘써 왔다. 올해는 이 연구 사업의 마지막 해로 그동안 기술한 교육 내용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쉽게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검색기를 개발할 필요와 기술된 교육 내용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할 필요에 의해 수행되었다.

현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는 한국어교사들을 위한 한국어교수학습샘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샘터는 교수 참고 자료, 한국어 교재,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기초 연구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개발한 문법·표현 교육 내용의 기술 항목은 초급 89항목(92항목 기술), 중급 113항목으로 항목 개수는 많지 않으나 8개의 필드 정보가 항목별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양이 적지 않아 책으로 인쇄할 경우 사용이 간편하지 않다. 또한 활용성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무료 검색이 사용자들에게 훨씬 편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검색기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법·표현 교육 내용의 검색은 한국어교수학습샘터의 기초 연구 자료 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디자인될 것이다.

교육 내용의 보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게 되었다. 2013년에 기술된 초급 문법·표현 항목의 교육 내용과 2014년에 기술된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교육 내용은 둘을 비교해 본 결과 초급과 중급의 수준 차이로 인해 내용 기술의 형식적 측면에서 차이가 생겨나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문법이나 중국인 교수를 위한 도움말 등은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 또한 적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두 권의 보고서가 검색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쇄를 목적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검색기에 필요한 형식으로 변환해야 할 필요가 생겼으며 이 역시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했다.

외국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하려면 발음, 어휘, 문법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이 밑바탕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영어교육이나 일본어교육 등 여타 외국어 교육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문법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록 본 연구 결과물이 조사, 어미, 표현 등 형태별 문법 범주로 나뉘어 기술된 점, 초급과 중급 항목만 기술된 점 등 여러 한계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연구 성과물이 축적되면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문법 범주별 문법서 발간과 고급 항목의 문법 교육 내용 개발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1.2. 연구 목적

2015년의 연구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개발된 초급, 중급의 문법·표현 항목의 교육 내용을 재검토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법 교육 내용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연구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다양한 교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의 상호 교차 검토 과정을 통해 주

요 오류를 바로잡고 유사문법과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였다.

둘째, 한국어교사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검색기를 개발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교수에 필요한 항목의 교육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기를 개발하는 것이 올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검색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검색 기능을 추출하고, 검색 업체를 통해 검색 시안을 마련하여 한국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조사는 4개 대학의 한국어교육원 교사 각 5명씩 20명과 국립국어원의 공동연수회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원 연수회 참여 교사 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셋째, 검색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제까지 개발된 교육 내용은 검색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을 위해 검색창에 전체 내용을 입력하였으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의 어깨번호를 기술 대상의 문법 항목 내에서 새로 조정하고, 다의어 역시 기술 대상의 문법 항목 내에서 다시 구분하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이형태, 관련형 등을 대표형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항목을 묶어 주는 작업을 하였다. 이외에도 서로 다른 항목에서 기술되어 내용의 차이가 발생한 유사문법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유사문법 항목의 제시 기준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제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법·표현 항목에 대한 교육 내용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기술하여 한국어교육 문법의 기초 자료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한국어 교수자나 연구자, 교재 개발자, 그리고 학습자가 언어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1.2. 연구 범위

올해 사업의 연구 범위에 대한 이해를 위해 2012년~2014년까지의 사업 내용을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다.

2012년 제1단계 연구에서는 문법·표현 항목의 등급 기준 마련, 문법·표현 교육 내용 기술안 개발, 초급 문법 범주의 중국어·몽골어 대조 연구라는 세 가지 세부 연구 과제를 진행하였다. 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선정된 초급 문법·표현 항목을 정련하고 초급 문법·표현 항목의 문법 교육 내용을 기술하였고, 3단계 연구에서는 2단계에서 선정된 중급 문법·표현 항목을 정련하고,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교육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 사업의 첫째 과제인 문법·표현 항목의 등급별 선정은 국립국어원 주관으로 수행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Ⅱ(2011)”의 등급별 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한국어능력 시험’(TOPIK)의 항목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앞의 두 자료의 항목이 불일치할 때는 한국어 화자 말뭉치(세종 말뭉치 빈도) 빈도, 교수·학습의 실제성(교재 중복도)를 기준으로 등급화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변이형과 관련형은 한 항목으로 묶어 교수할 것을 제안하였

는데, 변이형은 형태적 이형태를 지칭하며 관련형은 '-을 수 있다'와 '-을 수 없다'처럼 함께 관련하여 교수하는 것이 효율적인 항목을 가리킨다. 그 결과 초급 89항목(92항목 기술), 중급 113항목이 선정되었는데, 이 항목은 기존의 '한국어 능력 시험'의 항목보다 개수가 약간 적으며 지금보다 쉬운 초급, 중급 항목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과제인 문법 · 표현 교육 내용 기술안 마련을 위해서는 외국어 문법서 분석과 한국어 교사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교수를 위해 필요한 8가지 교육 정보를 구성하였다. 8가지 교육 정보는 '의미 및 용법, 예문, 도입, 형태 정보, 문장 구성 정보, 제약 정보, 확장, 유사 문법'으로, 이 정보들은 한국어교육의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가공이 가능하다.

이 사업의 셋째 과제는 대조 언어학적 분석이다. 대조 연구는 외국어교육에서 학습자들이 범하는 언어간 전이 오류를 설명해 주며, 교수나 학습 전에 오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준다. 1단계에서는 중국어, 몽골어와의 초급 문법 범주 대조가 이루어졌는데, 2단계부터는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중국인 학습자를 교수하는 데 필요한 도움말을 기술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

올해는 이 사업의 마지막 해로, 이제까지 개발한 초급과 중급의 문법 · 표현 교육 내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자유롭게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검색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잘못 기술되거나 체계가 맞지 않는 기술 내용을 수정하고 유사 문법과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검색기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오류들을 상호 교차 검색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장치로 아주 유용하다. 교육 내용의 수정에 대한 상세 기술은 3장에서 검색기 개발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4장에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2장은 최종적으로 기술된 초급과 중급의 문법 · 표현 항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 3단계 연구 결과로 기술된 초급, 중급 문법 · 표현 항목의 교육 내용을 검토, 보완하고, 기술된 교육 내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초급, 중급 문법 · 표현 항목의 최종 목록

2.1. 초급 문법 · 표현 항목

2단계에서 선정, 기술된 초급 문법 항목은 총 92항목이다. 초급 문법·표현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사,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표현으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초급 문법·표현 항목(92항목 기술)

조사[2)] (29)	이(가), 과(와), 께, 께서, 이나(나[1]), 을[1](를), 이랑(랑), 으로(로), 보다, 에, 에게, 에게로, 에게서, 에서(서), 의, 이다[1], 처럼, 하고, 한테, 한테서, 까지, 은[1](는[2]), 도, 마다, 만, 밖에, 부터, 에다가(에다), 에서부터(서부터)
선어말 어미 (3)	-겠-, -었-(-았-/-였-), -으시-(-시-)
연결어미[3)] (12)	-거나, -게[1], -고[1], -는데[1](-은데[1]/-ㄴ데[1]), -다가1, -으러(-러), -으면(-면[1]), -어서(-아서/-여서), -지만, -으려고(-려고), -으면서(-면서), -으니까(-니까)
전성어미[4)] (6)	-기, -는[1], -은[2], -은[3], -음, -을[2]
종결어미 (14)	-는군(-군/-는군요/-군요), -는데[2](-은데[2]/-ㄴ데[2]/-는데요/-은데요/-ㄴ데요), -을게(-ㄹ게/을게요/-ㄹ게요), -을까(-ㄹ까/을까요/-ㄹ까요), -습니까(-ㅂ니까), -습니다(-ㅂ니다), -읍시다(-ㅂ시다), -으세요(-세요/-으셔요/-셔요/-으시어요/-시어요), -으십시오(-십시오), -어[1](-아[3]/-여[2]/-어요/-아요/-여요), -지(-지요), -네(-네요), -을래(-을래요/-ㄹ래요), -고[2](-고요[1])
표현[5)] (28)	-고 있다, -어 있다(-아 있다/-여 있다), -기 때문에(-기 때문이다), -기 전에(-기 전), -기로 하다, -을 것 같다(-는 것 같다/-은 것 같다), -은 지(-ㄴ 지), -은 후에(-은 후/-ㄴ 후에/-ㄴ 후)<유의: -은 뒤에(-은 뒤)>, -을 때(-ㄹ 때), -을까 보다(-ㄹ까 보다), -는 동안에(-는 동안), -은 적이 있다(-는 적이 있

	다)<반의: -은 적이 없다(-는 적이 없다)>, -게 되다, -고 싶다, -을 수밖에 없다, -을 수 있다<반의: -을 수 없다>, -어 보다(-아 보다/-여 보다), -어 주다(-아 주다/-여 주다), -어도 되다(-아도 되다/-여도 되다), -어야 되다(-아야 되다/-여야 되다)<유의: -어야 하다(-아야 하다/-여야 하다)>, -지 말다, -지 못하다, -지 않다, 이 아니다(가 아니다), -는 것, -은 것, -을 것[2], -을 것[1]

항목 뒤 소괄호 안의 문법 · 표현 항목은 이형태 또는 관련형이고, 표현에서 <유의> 또는 <반의> 표시 뒤에 제시된 표현 항목들도 관련형에 포함된다. 이형태와 관련형을 대표형에 포함시켜 기술할 때의 장점은 둘 또는 셋 이상의 형태를 별개의 항목이 아닌 하나의 항목으로 인지함으로 학습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밑줄 친 '-은[3]'과 '-은 것, -을 것[2]'는 각각 '-는[2]'와 '-는 것'의 관련형이다. 이들 항목은 대표형과 같이 기술하면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 이해에 방해가 되어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된 것이다. 결국 대표형을 기준으로 하면 총 89항목이 초급 항목으로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집필된 항목은 92항목이다.

집필 항목은 다의어를 1), 2)로 나누어 기술한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123항목이 집필되었다.

2.2. 중급 문법 · 표현 항목

3단계에서 선정, 기술된 중급 문법 항목은 총 113항목이다. 중급 문법·표현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사,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표현으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1단계에서 30항목이 선정되었으나 2단계 기술 과정에서 조사 '다가'를 제외하였다.
3) 1단계에서 12항목이 선정되었는데 2단계 기술 과정에서 '-지1'가 제외되었고 '-다가'가 추가되었다.
4) 1단계에서 5항목이 선정되었으나 2단계 기술 과정에서 형용사 뒤에 결합되는 '-은3'을 '-는2'와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하여 6항목이 되었다.
5) 1단계에서 24항목이 선정되었으나 2단계에서 유보 항목을 확정하면서 '-는 것'과 '-을 것1'을 초급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는 것'은 기술 과정에서 다시 '-는 것, -은 것, -을 것2'로 나누어 집필하였다.

<표 2> 중급 문법・표현 항목(113항목 기술)

조사 (19)	같이, 이고(고[4]), 이며(하며, 이다[2]/다[2]), 커녕(는커녕/은커녕), 이나마(나마), 대로, 이든(이든지/든[1]/든지[2]), 이든가(든가), 이라고(라고[1]/라/이라), 이란(란), 으로부터, 만큼, 이면(면[2]), 보고, 뿐, 아[1](야[1]), 이야(야[2]), 요, 치고
선어말 어미 (1)	-었었-(-았었/-였었-)
연결어미 (28)	-거니와, -거든[1], -고도, -고서, -고자, -기에, -느라고, -는다거나[1], -는다고, -는다면, -다가[2](-다[3]), -다시피, -더니, -더라도, -던데[1], -도록, -든지[1], -듯이, -어다가(-아다가/-여다가), -어도(-아도/-여도), -어야(-아야/-여야), -어야지[1](-아야지[1]/-여야지[1]), -으나(-나[2]), -으니[1](-니[3]), -으므로(-므로), -을래야(-ㄹ래야), -자마자(-자[2]), -었더니(-았더니/-였더니)
전성어미 (1)	-던-
종결어미 (17)	-거든[2], -게[2](-게요), -고[3](-고요[2]), -는구나(-구나), -는다(-다[4]), -는다니(-다니, -라니), -더군, -더라, -던데[2](-던데요), -어라(-아라/-여라), -잖아, -니[1], -자[1], -나요, -을걸(-ㄹ걸/-을걸요/-ㄹ걸요), -는다면서(-다면서/-라면서, -는다면서요), -어야지[2](-아야지[2]/-여야지[2])
표현 (47)	-게 하다, -고 나다, -고 말다, -고 보다, -고 싶어 하다, -고 해서, -기 위해(을 위해), -은 결과, -는 김에, -은 다음에, -는 대로(-은 대로), -는 대신에, -는 듯(-은 듯/-을 듯), -는 만큼(-은 만큼[1]/-을 만큼), -는 반면(-은 반면), -는 줄(-은 줄), -는 탓에, -는다거나[2], -나 보다, -나 싶다, -는 바람에, -는 사이에, -는 한, -을 따름이다(-ㄹ 따름이다), -을 테니(-ㄹ 테니), -을 텐데(-ㄹ 텐데), -으면 안 되다(-면 되다), -으면 좋겠다(-면 좋겠다), -어 가다, -어 가지고, -어 놓다, -어 대다, -어 두다, -어 드리다, -어 버리다, -어 오다, -어서인지, -어야겠-, -어지다, -으라니(-라니), -으로 인하여(로 인하여), -만 같아도, -만 아니면, 에 대하여, 에 따라, 에 비하여, 에 의하면, -으려고 들다

다의어를 기준으로 보면 중급에서는 총 134항목이 기술되었다. 다의어를 기준으로 초급, 중급 항목을 합하면 총 257항목이다.

제3장 문법·표현 교육 내용의 정비

3.1. 교육 내용 정비의 필요성

초급,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교육 내용을 정비하는 첫 번째 목적은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다. 초급, 중급의 교육 내용 기술은 연구원의 1차 집필, 팀별 회의를 통한 2차 집필, 공동 참여 교수의 감수, 연구 책임자의 최종 감수를 거쳐서 집필되었지만 여러 항목을 짧은 시간 안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어이없는 실수와 오류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더불어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기를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통일하는 작업을 하였다.

둘째,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내용 기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초급과 중급은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술된 내용에 있어서도 초급 학습자에게 맞는 내용, 중급 학습자에게 맞는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초급은 너무 간단하게 기술되는가 하면 반대로 중급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기술된 내용이 있었다. 이러한 일관적이지 못한 기술 내용은 특히 유사 문법 기술에서 두드러졌다. 초급에서 집필된 유사 문법 항목을 중급에서 재기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둘의 기술 수준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일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초급 항목끼리의 비교는 초급 수준으로, 초급과 중급 항목의 비교는 중급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그 밖에도 형식적으로 누락된 부분이나 내용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최대한 보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유사 문법의 항목 제시가 집필자에 따라 들쑥날쑥한 것을 최대한 정비하여 유사 문법 항목끼리는 양쪽 항목에서 다 찾아볼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하거나 쓸모가 적어 몇 가지 경우는 예외로 하여 유사 문법 항목을 정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다음은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의 내용 정비이다. 먼저 필드의 제목을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에서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이 정보가 목적하는 바를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집필 지침의 표현도 몇 가지 수정을 하였는데 대응 표현에서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이라는 표현을 '대응 표현 없이 사용되기도 함'으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수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도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은 대응 표현과 오류 및 용법 부분에서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색기를 개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고 기생성된 정보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1장에서 밝힌 것처럼 그동안 집필된 교육 내용은 검색기 개발을 목적으로 형식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기에 맞춰 교육 내용을 새로 입력하는 노력을 하

게 되었다. 이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의 표제어 어깨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본 연구의 표제어 어깨번호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전체 검색 항목을 대상으로 어깨번호를 다시 매기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이미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의 초급, 중급 항목과 한국어능력시험, 국제 통용 표준 모형의 문법·표현 항목을 비교한 표를 다시 한 번 점검하였다. 그 밖에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형태와 관련형의 검색이 대표형으로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대표형과 이형태, 관련형을 묶어 주는 작업을 정밀하게 다시 하였다.

3.2. 교육 내용 정비

3.2.1. 예문의 적절성

문법·표현 교육 내용 연구의 정보는 의미 및 용법, 예문, 도입, 형태 정보, 문장 구성 정보, 제약 정보, 확장, 유사 문법 등 8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8개의 정보는 교수를 할 때 필요한 정보(기본 정보)와 문법 지식으로 교사가 알고 있으면 좋을 정보(심화 정보)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의미 및 용법, 예문, 도입, 형태 정보, 문장 구성 정보가 교육 내용으로 사용된다. 그 외의 정보들은 학습자의 수준이나 학습 상황에 따라 교수되기도 하고 교수되지 않기도 하는바 교사는 학습자의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제약 정보, 확장의 다양한 정보(목표 문법 이상의 다의어 정보, 관련형 정보 등), 유사 문법 등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8개의 정보 중 예문은 해당 문법·표현 항목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키거나 연습시키는 데 적절한 것을 한국어 교재나 사전 등을 통해 추출, 가공한 것이다. 이 예문이 적절해야만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를 가르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마다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예문을 뽑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예문은 담화 예문과 문장 예문으로 나누어 제시되고, 초급은 5개의 담화 예문과 10여 개의 문장 예문, 중급은 2~3개의 담화 예문과 역시 10여 개의 문장 예문으로 집필되어 있다. 예문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문법 항목을 사용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규범적인 예문을 제시해야 하는데 미처 이러한 부분이 수정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다음 예처럼 경어법에 맞지 않는 예문이 있었다.

예)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어서**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요.

‘나’라는 대명사는 ‘-습니다’나 ‘-어요’ 종결어미와 잘 어울려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의 예문은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어서**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요’로 수정해야 한다.

다음 예문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수정한 예이다.

예) 나: 네. 그건 ’달고나’라고 하는데 군것질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에 아이들이 즐겨 **먹던** 과자예요.
→ ~ 즐겨 먹던 거예요.

‘달고나’를 과자로 보는 사람도 있겠으나 정확하지 않아 ‘과자예요’를 ‘거예요’로 수정했다.
다음은 집필 지침에 맞게 문장 예문의 마지막 예문을 격식적인 ‘-습니다’체로 수정한 예이다.

예) 대학 졸업 후에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을 이어 받기로 했어요.
→ ~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예문의 적절성은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지적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다.

3.2.2. 형태 정보의 정확성

형태 정보는 일정한 몇 가지의 패턴만 익히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집필된 항목 내용을 보면 적지 않게 오류가 나타나며, 특히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보여 주는 형태 정보 표가 집필 지침에 맞지 않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먼저 집필 지침을 따르지 않아 나타난 오류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어간 뒤에 '-는구나'를 쓴다. 단, 어간이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먹- + -는구나 → 먹는구나
보- + -는구나 → 보는구나
팔- + -는구나 → 파는구나
듣- + -는구나 → 듣는구나
가- + -는구나 → 가는구나
만들- + -는구나 → 만드는구나

②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어간 뒤에 '-구나'를 쓴다.

예) 작- + -구나 → 작구나
춥- + -구나 → 춥구나
바쁘- + -구나 → 바쁘구나
많- + -구나 → 많구나
크- + -구나 → 크구나
예쁘- + -구나 → 예쁘구나

①	동사	받침 o, x	+ -는구나	먹는구나, 듣는구나, 찾는구나, 가는구나, 보는구나
		ㄹ 받침	+ -는구나 (어간 'ㄹ' 탈락)	파는구나, 만드는구나
②	형용사	받침 o, x	+ -구나	작구나, 많구나, 춥구나 크구나, 바쁘구나

③ '이다, 아니다'도 '-구나'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구나'로 쓴다.

예) 학생이- + -구나 → 학생이구나
책상이- + -구나 → 책상이구나
사과이 + -구나 → 사과이구나/사과구나
선생님이- + -구나 → 선생님이구나
의사이 + -구나 → 의사이구나/의사구나
아니- + -구나 → 아니구나

위 예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이전 보고서에 집필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보완이 필요한 예이다.

또 형태 정보에 보충된 내용도 있는데 아래의 '-는구나'처럼 선어말어미 '-었-, -겠-' 뒤에 이형태인 '-구나'가 연결되는 경우 이를 정보로 보충하였다.

+ 동사 뒤에 '-었-, -겠-'이 결합할 때는 '-구나'를 쓴다.

예) 먹- + -었-/-겠- + -구나 → 먹었구나/먹겠구나
찾- + -았-/-겠- + -구나 → 찾았구나/찾겠구나
만들- + -었-/-겠- + -구나 → 만들었구나/만들겠구나
보- + -았-/-겠- + -구나 → 보았구나/보겠구나
팔- + -았-/-겠- + -구나 → 팔았구나/팔겠구나

새로 집필된 항목에는 다의어가 있다. 이전 보고서에는 다의어의 형태 정보를 첫 번째 의미를 참고하도록 하였는데(앞의 '대로1)'을 참고한다), 검색에서는 다시 찾아보기 기능을 사용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다의어의 형태 정보를 모두 재집필하였다.

3.2.3. 유사 문법의 통일성

8개의 정보 중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사 문법 필드는 이제까지 나온 학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집필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로 다른 이견이 존재하여 집필자의 판단이 요구되는 내용이다.

유사 문법은 초급이 먼저 집필된 후 중급이 집필되었기 때문에 교차 검토를 하였을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사 문법 항목의 집필 내용이 다르다.
(2) 유사 문법 항목의 설정이 관련 항목에서 다르다.
(3) 초급/중급의 유사 문법 항목의 경우 초급 항목에는 유사 문법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데 반해 중급 항목에는 유사 문법이 기술되어 있다.

(1)은 유사 문법 항목끼리의 교차 작업을 실시하였을 때 이미 예상했던 문제이다. 범주별, 급별로 집필자가 다른 경우 교차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4단계에서 수정을 하기로 했던 내용이다.

반면 (2)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다. 초급의 '처럼'에는 '같이'와 '만큼'의 유사 문법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중급의 '만큼'에는 '같이(처럼)'을 묶어서 유사 문법을 기술하고 있다든지 '-어서'에는 '-으니까, -기 때문에' 유사 문법 내용이 있는데 '-으니까'에는 '-기 때문에'를 빼고 '-으니까'와 '-어서'가 집필되어 있는 예이다. (3)도 (2)와 비슷한 체계성의 문제인데 처음 교차 작업을 시작할 때는 초급, 중급 양쪽에서 유사 문법 내용을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예를 들어 보조사 '은'을 가르칠 때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으란'을 비교하여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으란'에만 '은'과의 유사 문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다. 유사 문법 기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순서상 후행하는 유사 문법 항목에 유사 문법 내용을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수 순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쪽에 모두 기술한다.(이때 기술 내용 동일해야 함.)
3. 경어법 등급에서 차이가 나는 종결어미는 모든 항목에 내용을 기술한다.(이때도 역시 기술 내용 동일해야 함.)
4. 3개 항목 이상이 묶여 있는 경우는 교수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술한다.

4의 원칙은 (2)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다. 사실 3개 항목 이상을 비교하여 유사 문법을 이해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 순서에 따라 2개 항목 시 유사 문법을 기술하는 것이 먼저 선행된 후 3개 항목 이상이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하에 3개 항목 이상의 유사 문법 비교는 교수 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기술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와 표현은 3개가 넘는다. 그런데 이 차이를 모든 항목에서 다 기술하는 것은 복잡하기만 하고 실제 활용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3단계까지 집필된 유사 문법의 항목별 정비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유사 문법 '만큼'을 배울 때 학습자들은 '같이'와 '처럼'의 차이점을 알고 있으며 필요한 내용은 '만큼, 처럼, 같이'의 각각의 차이점보다는 '만큼'과 '이미 배운 '처럼, 같이'와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만큼'과 '처럼(같이)'가 기술은 교수 순서상 '처럼'과 '같이'를 배우고 난 후 '은'과 '으란'처럼 교수 순서가 분명한 경우는 1의 원칙을 따르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2에 따르도록 하였다.

<표 3> 유사 문법 항목별 정비 내용

문법 항목	검토 내용	검토 결과
에서2)	②번의 '를'을 '을'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지... ②번 내용이 '을'의 유사 문법에 없음	'을'로 바꿔야 함. ②번 '을'에 추가해야 함.
처럼	'같이', '만큼' 모두 클릭하여 들어가면 유사 문법 내용이 다름	1. '같이'에 맞추어 '만큼/같이, 처럼/같이' 수정. 2. '만큼/처럼'은 '처럼'에 맞추어 수정. '처럼'항의 유사 문법 내용 훌륭하나 '만큼'과 '같이'를 같이 다루고 있고 부가 설명이 너무 많아 복잡함.
-게1)	'-도록2)'와 유사 문법 내용 다름	'게1)'에 맞게 '-도록' 수정.
-느라고	'-어서1)', '느라고', '니까'로 묶여 있는데, '-어서1)'에는 '-느라고'와만 묶여 있음.	'어서1)'에 '-느라고/으니까' 항목 추가
-으니까1)	'-어서1)', '-기 때문에'와 유사 문법 내용 다름	'-어서1)'에 맞게 수정.
-네	'-는구나'와 유사문법 내용 다름.	'-네'에 맞게 수정.
-으십시오	①번 항목에 '-으세요3)', '-어3)', '-어라'와 묶어야 함... 현재 '-어라'가 빠져 있음. '-어3)'의 유사문법 표처럼...	'-어3)'에 맞추어서 수정.
-으세요3)	-으십시오, -으세요3), -어3), -어라 => 이렇게 4항	1. '-어3)'에 맞추어서 수정.

	목이 묶여야 함. '-어3)'의 유사문법 표처럼... -어 주세요, -으십시오, -으세요3) => 이렇게 3항목 묶인 유사문법 표 추가되어야 함. '-으십시오'에는 있음.	2. '-어 주세요'에 맞추어 '-으십시오' 수정. 이때 '-으세요'는 '-으세요3)'으로 수정. 3. '-으세요3)'에는 추가
-을게	'-을래'와의 유사문법 내용이 '-을래'와 다름. '-을래'를 '-을래1)'로 수정해야 함.	1. '-을게'에 맞추어 '-을래'를 수정 2. '-을래'를 '-을래1)'로 수정.
-을까1)	-을래2)와 유사문법 내용 없음. -을래2)에는 있음.	'-을래2)'의 내용을 옮겨와야 함.
-어4)	'-읍시다, -어4), -자'로 묶여야 함. 내용 누락되어 있음.	1. '-읍시다'에 맞추어 '-자' 수정. 2. '-어4' 항목에 '어4)/-읍시다/자' 추가
-읍시다	'-읍시다, -어4), -자'로 묶임. '-자'와 내용이 다름.	그대로 둠.
-자	'-어4), -읍시다, 자' 세 개가 묶였으나 '-어4)'의 표 내용과 다르며 '-어'로 표기되어 있음.	'-읍시다'에 맞추어 수정.
-게 되다	'-어지다1)', '-어지다2)'에 각각 '-게 되다'와 묶여 있고 '-게 되다', '-어지다1)', '-어지다2)'의 유사문법 내용이 모두 다름. 셋을 비교하여 정리해야 함.	1. '-어 지다2)/-게 되다'만 비교할 것임.(내용 유지) 2. '-어지다1)'의 유사문법 삭제 3. '-게 되다' 항목의 유사문법을 '-어 지다2)'의 내용으로 수정.
-고 싶다	'-을래1)'과의 유사문법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을래1)'에는 있음. '-고 싶어 하다'와 서로 비교 내용이 다름. 기준 정해서 정리해야 함.	1. '-을래1)'의 내용 옮겨야 함. 2. '-고 싶다'에 맞추어 '-고 싶어하다' 수정
-기 때문에	'-어서', '-으니까'=> -어서1), -으니까1) -기 때문에, -어서1), -으니까1), -으므로... 와 서로 묶인 부분이 다름...	'-어서1)'에 맞게 수정.
-는 동안에	'-는 사이에'와 서로 비교 내용이 다름.	'-는 사이에'에 맞게 수정.
-어 주다	'-으세요'=> '-으세요3)'으로...	항목 '-으세요'를 '-으세요3)'으로 수정
-은 후에	'-은지2'와 '-은 다음에, -은 후에, -은 뒤에'와 묶여 비교한 유사문법 표가 없음. -은지2에는 있음. '-고'가 중급 종결어미 '-고'로 링크되어 있음.	1. -은지2)'의 내용을 옮김. 2. '-고'를 '-고2)'로 수정하고 링크도 '-고2)'로 수정.
-은 다음에	'-은지2'와 '-은 다음에, -은 후에, -은 뒤에'와 묶여 비교한 유사문법 표가 없음. -은지2에는 있음.	1. -은지2)'의 내용을 옮김.
-을 것 같	'-나 보다', '-는 모양이다', '-는 것 같다', '-는 듯하	'-나 보다'에 맞추어 수정.

다	다' => '-나 보다'의 표와 비교 내용이 다름.	
-을 것[1]	'-기'와 비교하는 유사문법이 있는데, '-기'에는 없음.	'-기'에 추가
-기 전에	'-은 후에'와 비교한 유사문법 표가 없음. '-은 후에'에는 있음.	'-은 후에'의 내용을 옮김.
-지 못하다	'-을 수 없다1)'과 비교한 유사문법 표가 없음. '-을 수 없다1)'에는 있음. '-을 수 없다2)'와 비교한 유사문법 표가 없음. '-을 수 없다2)'에는 있음.	역시 옮김.
-을 수 있다2)	②번의 '-을 수 있다/-을 수 없다', '-어도 되다/-으면 안 되다' 비교한 유사문법 내용이 '-어도 되다'와 '-으면 안 되다'에는 없음.	'-어도 되다'에 추가.
-거든	'-으면'과 비교된 내용이 다름.	'-으면'에 맞추어 수정.
-고도	'-지만'과 비교된 유사문법 내용이 있지만, '-지만'에는 없음.	'-고도'를 '-지만'으로 옮김.
-고서	종결어미 '-고'와 링크되어 있음. 연결어미 '-고2)'와는 비교되어 있지 않음.	고2)와 링크되어야 함. 유사문법에서 표제어를 '-고2)'로 고칠 것.
-기 때문에	'-기에'와 비교된 유사문법 없음. '-기에'에는 있음. '-으므로'와 비교된 유사문법 없음. '-으므로'에는 있음.	1. 추가: '-기에'의 내용 옮김. 2. 추가: '-으므로'의 내용 옮김.
-도록1)	'-게 하다'와 비교된 내용이 '-게 하다1)'에서 기술된 것과 다름.	'-게 하다'에 기술된 내용으로 바꿀 것.
-어야1)	'-으면'과 비교된 유사문법 내용이 '-으면'에는 없음.	추가
-어야2)	'-어도'와 비교된 유사문법 내용이 '-어도'에는 없음.	추가
-으나	'-지만'과 비교된 유사문법 내용이 '-지만'과 다름. '-는데2)'와 비교된 유사문법 내용이 '-는데2)'에 없음.	1. '-으나'에 맞추어 '-지만'의 유사문법을 수정. 2. '-는데'에 내용 추가
-으니1)	'-는데1)'과 비교된 유사문법 내용이 '-는데1)'에는 없음.	추가
-으므로	'-으니까'와 비교된 유사문법 내용이 서로 다름.	'-으니까'에 맞추어 통일
-던데[2]	'-더군'과 비교된 유사문법 내용이 '-더군'에는 없음.	추가
-을걸	'-을 것 같다'와 비교된 유사문법 내용이 '-을 것 같다'에는 없음.	추가
-에 비하여	'보다'와 비교된 내용이 서로 다름.	'보다'에 맞추어 수정
-에 의하면	유사문법 비교 항목이 동일한데 내용이 다른 것이 기술됨.	첫 번째 ① 완전 삭제

-고 말다	'-어 버리다'와 비교된 유사문법 내용이 '-어 버리다'에는 없음.	추가
-지1)	'-어1)'과의 유사문법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어1)'에는 있음.	추가
-기로 하다	'-을게'와의 유사문법 내용 누락되어 있음. '-을게'에는 있음.	추가
-은 것2)	-은 것1)의 유사문법 내용이 입력되어 있음. => -은 것1)과 -은 것2)의 유사문법 내용이 서로 바뀜.	'-은 것1)'에 맞추어 수정
-은 다음에	①번에 '-은 후에'로 잘못 입력되어 있음. '-고'는 종결어미 '-고'로 잘못 링크되어 있음.	1. ①의 '-은 후에'를 '-은 다음에'로 수정 2. '-고'를 '-고2)'로 수정하고 링크도 '-고2)'와 할 것.
-자	'-어'를 '-어4)'로 수정해야 함.	수정
-으니1)	②번 항목이 '-어서2)'가 아니라 '-어서1)'임... 링크도 고쳐야 함.	수정
-어라	-어, -으세요 => -어3), -으세요3) 으로 수정할 것.	수정
-을 것[1]	②번 표 안의 표제어가 '-을 것1'이 아닌 '-기에'가 써 있음.	수정
-다가(중급 연결어미)	유사문법 표 아래 내용 서로 뒤바뀐 것 있음.	위에서 세 번째 맨 왼쪽칸과 맨 오른쪽칸의 내용이 바뀜. 수정.
-어야 되다	첫 화면에 카테고리가 다 뜨지 않고 예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나머지 카테고리가 뜸.	수정
-나 싶다	목록의 '-지 싶다'자리에 '-나 모양이다'로 잘못 표기됨.	수정
-고 나다	'-고 보다'와 표 내용이 다름. 표가 동일하도록 추가될 부분 있음.	'-고 보다'를 '-고 나다'에 맞추어 수정할 것.
-는 만큼 2)	입력 안 되어 있음.	입력
-는 바람에	-는 탓에: 유사문법 입력 안 되어 있음. -기 때문에: '-는 바람에, -는 탓에, -는 통에, -기 때문에'가 비교되어 있는 표가 없음.(x)	'-는 탓에' 항목에 '-는 바람에'의 유사 문법 표 추가
-어 가다	'-고 있다1)'에는 비교표가 없음.(x) 표의 칸과 줄바뀜이 이상함.	표의 칸과 줄바꿈 수정할 것.
-어 주다	표의 문법 항목 볼드 처리 안 됨.	볼드 처리할 것.
-어야겠-2)	유사문법 부분만 입력되어 있고 다른 카테고리는 입력 안 되어 있음.	입력
-으라니2)	입력 안 되어 있음.	입력
-으려고 들다	문법 항목 볼드 처리 안 됨.	볼드 처리할 것.
-으면 안 되다2)	입력 안 되어 있음.	입력

-으면 좋겠다	표 형식 이상함.	수정
-은 결과	유사문법 카테고리가 확장 카테고리 밑으로 들어가 있음.	수정
-을 수 있다2)	'-어도 되다'와 비교한 표가 '-어도 되다'에는 없음.	'-어도 되다' 항목에 '-을 수 있다2)'의 유사문법 표 추가

3.2.4.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 내용 보완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의 집필자가 2단계와 3단계가 달라서 집필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내용이 균형이 맞지 않았었다. 4단계에서는 2단계의 집필자가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일관성 있는 내용 집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집필 지침에 맞는 형식 통일에 주의하였다.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의 내용 보완 및 수정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이라는 제목을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로 수정하였다.
(2) 형식적 통일성을 꾀하였다.
(3) 대응 표현에 해당하는 예문이 하나 이상 포함하도록 내용을 풍부히 하였다.
(4) 학습자 오류에 근거한 오류 및 용법 부분을 풍부히 하였다.
(5) 한국어 문법 규칙에 맞게 보완하여 기술, 수정하였다.(띄어쓰기, 마침표 등)

(1)은 자문회의를 통해 여러 번 지적된 문제로, 기술 내용의 목적에 맞게 제목을 수정한 것이다. (2)의 형식적 통일성은 예를 들어 대응 표현을 기술할 때 사용하였던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이라는 기술을 '대응 표현 없이 사용되기도 함'으로 수정하고 모든 표현을 이에 맞게 수정한 것 등을 포함한다. (3)은 집필 원칙임에도 누락된 예문이 적지 않아 보완을 한 것이다. (4)는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분히 집필자의 능력에 좌우되는 면이 크다. 3단계 집필에서 오류 양상은 다분히 기계적인 면이 적지 않아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4단계에서는 교수자이면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두 명의 연구원이 교차 검토하도록 하여 내용이 좀 더 풍부해졌다. (5)는 집필자가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 규범에 맞지 않는 내용이 기술되거나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오류가 많아 수정한 내용이다. 중국의 공동 연구원 중에는 중국어 대응 예문의 마침표를 중국식으로 '。'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때만 중국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온점)으로 통일하였다.

3.2.5. 검색을 위한 어깨 번호 수정

검색을 위해 집필된 항목만을 대상으로 어깨 번호를 재정비하였다. 복수의 동일형이 없는 항목에 어깨 번호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까지1')는 어깨 번호를 일괄 삭제하였으며, 복수의 동일형이 있는 경우 범주의 순서에 맞추어 어깨번호를 새로 달았다. 어깨 번호가 수정된 것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어깨 번호 수정 항목

문법·표현 항목	범주	등급
은[1]	조사	초급
-은[2]	전성어미	초급
-은[3]	전성어미	초급
을[1]	조사	초급
-을[2]	전성어미	초급
-는데[1]	연결어미	초급
-는데[2]	종결어미	초급
-고[1]	연결어미	초급
-고[2]	종결어미	초급
-고[3]	종결어미	중급
-을 것[1]	표현	초급
-을 것[2]	표현	초급
-거든[1]	연결어미	중급
-거든[2]	종결어미	중급
-게[1]	연결어미	중급
-게[2]	종결어미	중급
-던데[1]	연결어미	중급
-던데[2]	종결어미	중급
-어야지[1]	연결어미	중급
-어야지[2]	종결어미	중급
-는다거나[1]	연결어미	중급
-는다거나[2]	표현	중급

3.2.6. 한국어능력시험과 국제표준모형과의 등급별 비교/이형태 · 관련형 점검

다음은 검색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과 국제표준모형의 등급 비교 표이다. 관련하여 대표형을 중심으로 이형태와 관련형을 검토하여, 이형태와 관련형을 검색했을 시 대표형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목록을 정비하였다. <표 5>는 초급 항목으로 조사, 어미, 표현의 순서로 제시한다.

<표 5> 초급 문법 · 표현 항목 비교 및 대표형 · 이형태 · 관련형 정비 목록

범주	대표형	이형태	관련형	토픽	표준
조사	과	와		초급	초급
조사	까지			초급	초급
조사	께			초급	초급
조사	께서			초급	초급
조사	도			초급	초급
조사	마다			초급	초급
조사	만			초급	초급
조사	밖에			초급	초급
조사	보다			초급	초급
조사	부터			초급	초급
조사	에			초급	초급
조사	에게			초급	초급
조사	에게로			없음	초급
조사	에게서			초급	초급
조사	에다가		에다	없음	초급
조사	에서		서	초급	초급
조사	에서부터		서부터	없음	초급
조사	으로	로		초급	초급
조사	은[1]	는[2]		초급	초급
조사	을[1]	를		초급	초급
조사	의			초급	초급
조사	이	가		초급	초급
조사	이나	나[1]		초급	초급
조사	이다[1]			없음	초급
조사	이랑	랑		초급	초급
조사	처럼			초급	초급
조사	하고			초급	초급

조사	한테			초급	중급
조사	한테서			초급	중급

범주	대표형	이형태	관련형	토픽	표준
선어말어미	-겠-			초급	초급
선어말어미	-었-	-았-, -였-		초급	초급
선어말어미	-으시-	-시-		초급	초급
연결어미	-거나			초급	초급
연결어미	-게[1]		-게끔	초급	초급
연결어미	-고[1]			초급	중급
연결어미	-는데[1]	-은데[1], -ㄴ데[1]		초급	초급
연결어미	-다가[1]		-다[1]	중급	중급
연결어미	-어서	-아서, -여서	-어[2], -아[2], -여[1]	초급	초급
연결어미	-으니까	-니까		초급	초급
연결어미	-으러	-러		초급	초급
연결어미	-으려고	-려고		초급	초급
연결어미	-으면	-면[1]		초급	초급
연결어미	-으면서	-면서		초급	초급
연결어미	-지만			초급	초급
전성어미	-기			초급	초급
전성어미	-는[1]			초급	초급
전성어미	-은[2]	-ㄴ[2]		초급	초급
전성어미	-은[3]	-ㄴ[3]		초급	초급
전성어미	-을[2]	-ㄹ[2]		초급	초급
전성어미	-음	-ㅁ		초급	초급
종결어미	-고[2]		-고요[1]	초급	중급
종결어미	-네		-네요	초급	초급
종결어미	-는군	-군	-는군요, -군요	초급	초급
종결어미	-는데[2]	-ㄴ데[2], -은데[2]	-는데요, -ㄴ데요, -은데요	초급	초급
종결어미	-습니까	-ㅂ니까		초급	초급
종결어미	-습니다	-ㅂ니다		초급	초급

종결어미	-어[1]	-아[3],-여[2]	-어요, -아요, -여요	초급	초급
종결어미	-으세요	-세요	-으셔요, -셔요, -으시어요, -시어요	초급	초급
종결어미	-으십시오	-십시오		초급	초급
종결어미	-을게	-ㄹ게	-을게요, -ㄹ게요	초급	초급
종결어미	-을까	-ㄹ까	-을까요, -ㄹ까요	초급	초급
종결어미	-을래	-ㄹ래	-을래요, -ㄹ래요	초급	고급
종결어미	-읍시다	-ㅂ시다		초급	초급
종결어미	-지		-지요	초급	초급

범주	대표형	이형태	관련형	토픽	표준
표현	-게 되다			초급	초급
표현	-고 싶다			초급	초급
표현	-고 있다			초급	초급
표현	-기 때문에		N 때문에, -기 때문이다	초급	초급
표현	-기 전에		-기 전, N 전에	초급	초급
표현	-기로 하다			초급	초급
표현	-는 것			없음	초급
표현	-는 동안에		-는 동안, N 동안	없음	초급
표현	-어 보다	-아 보다, -여 보다		초급	초급
표현	-어 있다	-아 있다, -여 있다		없음	초급
표현	-어 주다	-아 주다, -여 주다		초급	초급
표현	-어도 되다	-아도 되다, -여도 되다		초급	초급
표현	-어야 되다	-아야 되다, -여야 되다		초급	초급
표현	-은 것	-ㄴ 것		없음	고급
표현	-은 적이 있다	-ㄴ 적이 있다	-은 적이 없다, -ㄴ 적이 없다	초급	초급
표현	-은 지	-ㄴ 지		초급	초급
표현	-은 후에	-ㄴ 후에	-은 후, -ㄴ 후	초급	초급
표현	-을 것 같다	-ㄹ 것 같다, -는 것 같다, -은 것 같다		초급	초급
표현	-을 것[1]	-ㄹ 것[1]		없음	초급
표현	-을 것[2]	-ㄹ 것[2]		없음	초급

표현	-을 때	-ㄹ 때		초급	초급
표현	-을 수 있다	-ㄹ 수 있다	-을 수 없다	초급	초급
표현	-을 수밖에 없다	-ㄹ 수밖에 없다		중급	초급
표현	-을까 보다	-ㄹ까 보다		중급	초급
표현	이 아니다	가 아니다		초급	초급
표현	지 말다			초급	초급
표현	지 못하다			초급	초급
표현	지 않다			초급	초급

다음은 중급 목록이다. 역시 조사, 어미, 표현의 순서로 제시한다.

<표 6> 중급 문법·표현 항목 비교 및 대표형·이형태·관련형 정비 목록

범주	대표형	이형태	관련형	토픽	표준모형
조사	같이			중급	중급
조사	대로			중급	중급
조사	만큼			중급	중급
조사	보고			없음	중급
조사	뿐			중급	중급
조사(호격)	아[1]	야[1]		중급	중급
조사	요			없음	중급
조사	으로부터	로부터		없음	중급
조사(나열)	이고	고[4]		없음	중급
조사	이나마	나마		중급	중급
조사	이든	든[1]	이든지, 든지[2]	없음	중급
조사	이든가	든가		없음	중급
조사	이라고	라고[1]	이라, 라	없음	중급
조사	이란	란		없음	중급
조사	이며	며	하며/이다[2], 다[2]	없음	중급
조사	이면	면[2]		없음	중급
조사(강조)	이야	야[2]		중급	중급
조사	치고			중급	중급
조사	커녕		ㄴ커녕, 는커녕, 은커녕	중급	중급

범주	대표형	이형태	관련형	토픽	표준모형
선어말어미	-었었-	-았었-, -였었-		중급	중급

연결어미	-거니와			없음	중급
연결어미	-거든[1]		거들랑	중급	중급
연결어미	-고도			없음	중급
연결어미	-고서			없음	고급
연결어미	-고자			없음	중급
연결어미	-기에			중급	중급
연결어미	-느라고		-느라	중급	중급
연결어미(나열)	-는다거나[1]	-ㄴ다거나[1], -다거나[1], -라거나[1]		없음	중급
연결어미(이유)	-는다고	-ㄴ다고,-다고, -라고[2]		중급	중급
연결어미	-는다면	-ㄴ다면, -다면, -라면		중급	고급
연결어미	-다가[2]		-다[3]	중급	중급
연결어미	-다시피			중급	중급
연결어미	-더니			중급	고급
연결어미	-더라도			중급	중급
연결어미	-던데[1]			중급	고급
연결어미	-도록			중급	중급
연결어미	-든지[1]		-든[2]	중급	중급
연결어미	-듯이			중급	최상급
연결어미	-어다가	-아다가, -여다가	-어다, -아다, -여다	없음	중급
연결어미	-어도	-아도, -여도		중급	중급
연결어미	-어야	-아야, -여야		중급	중급
연결어미	-어야지[1]	-아야지[1], -여야지[1]		중급	고급
연결어미	-었더니	-았더니, -였더니		없음	중급
연결어미	-으나	-나[2]		없음	중급
연결어미	-으니[1]	-니[2]		없음	중급
연결어미	-으므로	-므로		중급	중급
연결어미	-을래야	-ㄹ래야		없음	중급
연결어미	-자마자		-자[2]	중급	중급
전성어미	-던-			중급	고급
종결어미	-거든[2]		-거든요	중급	중급
종결어미(의문의근거)	-게[2]		-게요	없음	게5(의문) 고급 게6(의문의근거)중급
종결어미	-고[3]		-고요[2]	중급	중급
종결어미	-나요			중급	중급
종결어미	-는구나	-구나		없음	중급

종결어미	-는다	-ㄴ다, -다[4]		중급	중급
종결어미(의문,근거)	-는다니	-ㄴ다니, -다니, -라니		중급	중급
종결어미	-는다면서	-ㄴ다면서, -다면서, -라면서	-는다면서요, -다면서요, -라면서요	중급	고급
종결어미	-니[1]	-으니[2]		없음	고급
종결어미	-더군		-더군요	중급	중급
종결어미	-더라			중급	중급
종결어미	-던데[2]		-던데요	중급	중급
종결어미(명령)	-어라	-아라, -여라		중급	중급
종결어미	-어야지[2]	-아야지[2], -여야지[2]	-어야지요, -아야지요, -여야지요	중급	중급
종결어미	-을걸	-ㄹ걸	-을걸요, -ㄹ걸요	중급	고급
종결어미	-자[1]			중급	고급
종결어미	-잖아		-잖아요	중급	중급

범주	대표형	이형태	관련형	토픽	표준모형
표현	-게 하다			중급	중급
표현	-고 나다			중급	중급
표현	-고 말다			중급	중급
표현	-고 보다			중급	중급
표현	-고 싶어 하다			없음	중급
표현	-고 해서			없음	중급
표현	-기 위해		-기 위한	중급	중급
표현	-나 보다			중급	중급
표현	-나 싶다			중급	중급
표현	-는 김에		-ㄴ 김에, -은 김에	중급	중급
표현(선택)	-는다거나[2]	-ㄴ다거나[2]	-다거나[2], -라거나[2]	중급	중급
표현(현재)	-는 대로	-은 대로[1], -ㄴ 대로[1]	-은 대로[2], -ㄴ 대로[2]	중급	중급
표현	-는 대신에	-ㄴ 대신에[1], -은 대신에[1]	-ㄴ 대신에[2], -은 대신에[2]	중급	중급
표현	-는 만큼	-ㄴ 만큼[1], -은 만큼[1], -은 만큼[2], -ㄴ 만큼[2]	-을 만큼, -ㄹ 만큼,	중급	중급
표현	-는 바람에			중급	중급
표현	-는 반면에	-ㄴ 반면에[1], -은 반면에[1]	-ㄴ 반면에[2], -은 반면에[2]	중급	중급
표현	-는 사이에	-ㄴ 사이에, -은 사이에		중급	중급

표현	-는 줄	-ㄴ 줄, -은 줄, -ㄹ 줄, -을 줄		중급	중급
표현	-는 탓에	-ㄴ 탓에, -은 탓에		중급	중급
표현	-는 한		-은 한, -ㄴ 한	중급	중급
표현	-으려고 들다	-려고 들다		없음	없음
표현	만 같아도			없음	중급
표현	만 아니면			없음	중급
표현	-어 가다	-아 가다, -여 가다		중급	중급
표현	-어 가지고	-아 가지고, -여 가지고		중급	중급
표현	-어 놓다	-아 놓다, -여 놓다		중급	중급
표현	-어 대다	-아 대다, -여 대다		중급	중급
표현	-어 두다	-아 두다, -여 두다		중급	중급
표현	-어 드리다	-아 드리다, -여 드리다		없음	중급
표현	-어 버리다	-아 버리다, -여 버리다		중급	중급
표현	-어서인지	-아서인지, -여서인지		중급	중급
표현	-어야겠-	-아야겠-, -여야겠-		없음	중급
표현	-어 오다	-아 오다, -여 오다		중급	중급
표현	-어지다	-아지다,-여지다		중급	중급
표현	에 대하여	-에 대해	-에 대해서, -에 대한	중급	중급
표현	에 따라		에 따라서, 에 따른	없음	중급
표현	에 비하여	에 비해	에 비해서, 에 비하면	없음	중급
표현	에 의하면			없음	중급
표현	-으라니	-라니		없음	중급
표현	으로 인하여	로 인하여, 으로 인해, 로 인해	으로 인해서, 로 인해서, 으로 인한, 로 인한	없음	중급
표현	-으면 안되다	-면 안되다		중급	중급
표현	-으면 좋겠다	-면 좋겠다		없음	중급
표현	-은 결과	-ㄴ 결과		없음	중급
표현	-은 다음에	-ㄴ 다음에		없음	중급
표현	-을 따름이다	-ㄹ 따름이다	-을 뿐이다, -ㄹ 뿐이다	중급	중급
표현	-을 테니	-ㄹ 테니	-을 테니까, -ㄹ 테니까	중급	중급

표현	-을 텐데	-ㄹ 텐데	-을 텐데요, -ㄹ 텐데요	중급	중급

제4장 검색 시스템 개발

4.1. 검색 기능

4.1.1. 검색 시스템 개발의 목적

2013, 2014년에 걸친 「한국어교육 문법 · 표현 항목 내용 개발 연구」 사업을 통해 초급 89항목, 중급 113항목을 선정하여 교육 내용을 기술하였다. 그 결과물은 한글 파일로 작성되었고 그 분량은 A4 용지로 1000여 페이지에 이른다. 이를 책으로 인쇄할 경우 교사들이 경제적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 검색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데는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5년 사업에서는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 검색 시스템은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사를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한 "한국어교사학습샘터"(http://kcenter.korean.go.kr/)에 게시될 예정이며, 한국어교육 어휘 개발 연구의 결과물과 함께 그 정보가 검색 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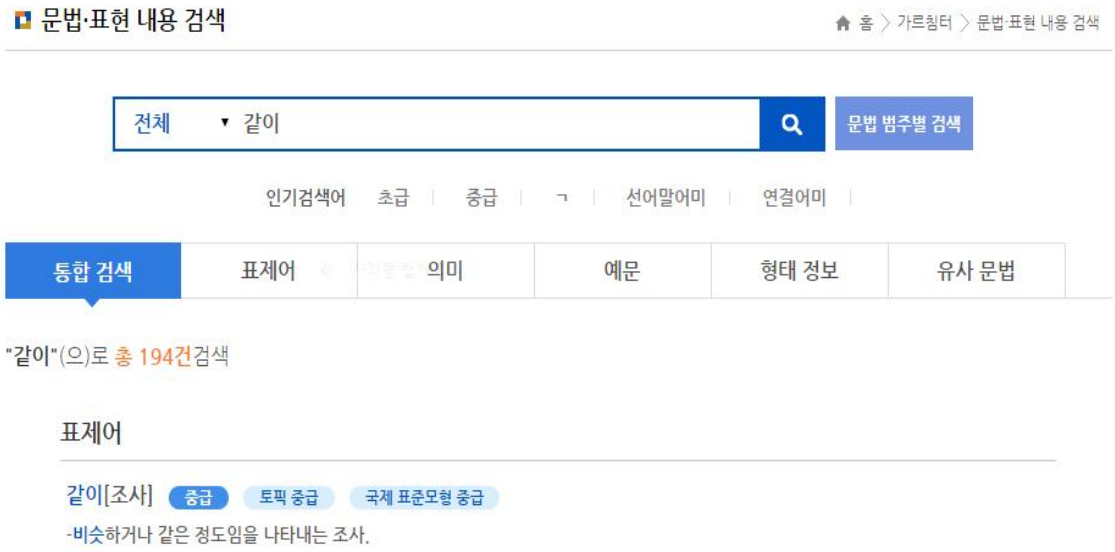
검색 시스템은 한국어교사들이 검색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더불어 교사들이 이용 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애초에 이 검색 시스템은 한국어교사들이 개발된 교육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더 좋은 교수 방법 등을 제안하기 위한 위키피디아식의 "의견 개진창"을 만들어 지식 제공자와 사용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를 계속해서 모니터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기 못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대신 사용자들의 의견은 의견창을 만들어 의견을 메일로 받고 일정한 양이 모아지면 이를 검토하여 교육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4.1.2. 검색 기능

4.1.2.1. 검색 관련 기능

- **기본 검색**

각 항목에 따라 설정된 필드를 색인하고 세부 필드별로 입력한 검색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검색된 첫 화면의 필드는 표제어, 의미, 예문, 도입, 형태 정보, 유사 문법으로 나누어 보여지도록 하였다.



<그림 1> 검색 결과 페이지 기본 형태

- **가나다 순 검색**

모든 표제어가 메인 페이지에서 가나다순으로 출력된다. 각 표제어를 누르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림 2> 검색 메인 페이지 가나다순 검색

- **등급별 검색**

모든 표제어가 메인 페이지에서 초급/중급으로 나누어져 출력된다. 각 표제어를 누르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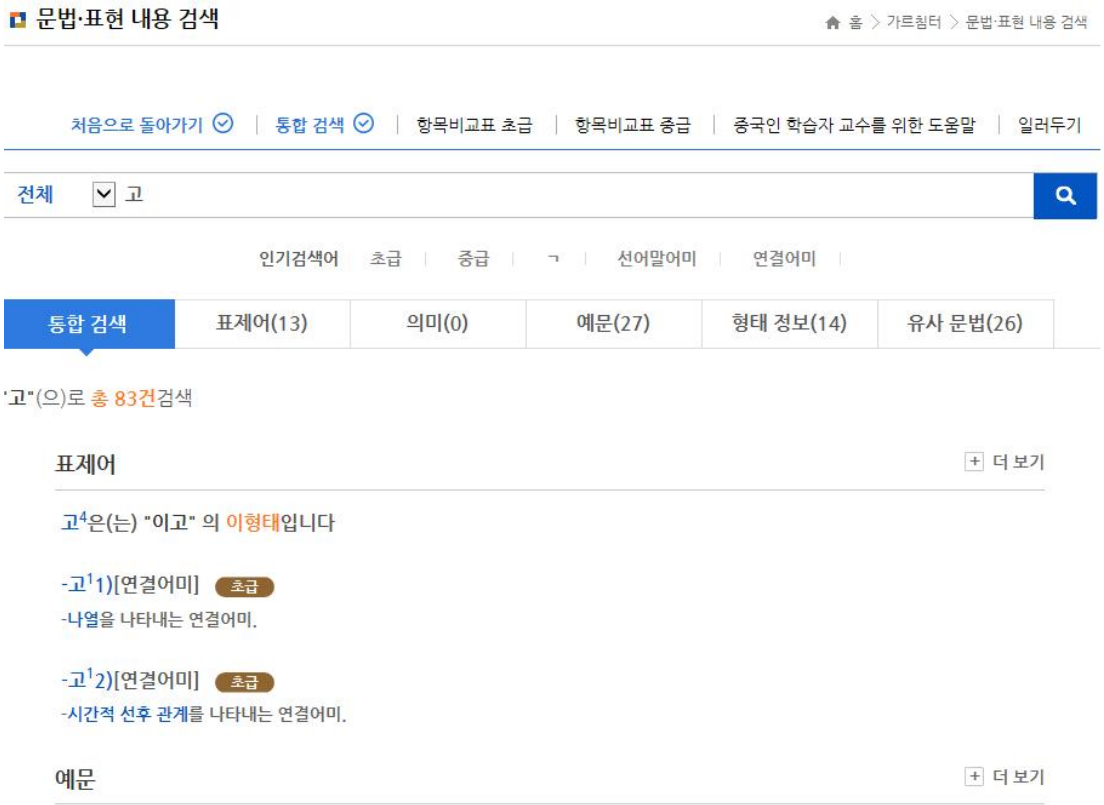
- **범주별 검색**

모든 표제어가 메인 페이지에서 범주별로 출력된다. 각 범주는 조사/선어말어미/연결어미/전성어미/종결어미/표현으로 나누어진다. 각 표제어를 누르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림 3> 검색 메인 페이지 등급별, 범주별 검색

- **이형태 및 관련형**

이형태 및 관련형 검색 시 대표형이 검색됨. 예를 들어 '이고'의 이형태인 '고'를 검색하면 다른 표제어와 함께 '이고'의 이형태인 '고'도 검색이 되며 이때 해당 표제어를 클릭하면 대표형의 정보로 연계된다.



<그림 4> 검색 결과 페이지 이형태/관련형 안내문

- **토픽 등급 및 국제표준 모형 등급 표시**

검색 결과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에서는 토픽 등급과 국제표준 모형 등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 **인기 검색어 제공**

모든 페이지 상단에 사용자 인기 검색어가 출력되며 해당 검색어를 클릭하면 검색 결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림 5> 최상단 페이지 인기검색어

4.1.2.2. 검색 외 기능

- **상세페이지 제공**

표제어 별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페이지가 제공된다. 상세 페이지 내에서의 각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항목별 내용 기술
- 펼치기/접기 기능
- 각 항목 인쇄 기능
- 사용자 의견 보내기 기능
- 유사 문법 항목 표제어 링크 기능

표제어

접기

께[조사] 초급 토픽 초급 국제 표준모형 초급

의미와 용법

접기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높임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화자보다 나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뒤에 결합하여 대상에 대한 높임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예문

접기

담화 예문	가: 앤디 씨는 누구에게 책을 줘요? 나: 저는 선생님께 책을 드려요. 가: 마이클 씨, 어머니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나: 손수건이 좋겠어요. 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나: 네, 조금 전에 드렸어요.

<그림 6> 상세페이지 상단

유사 문법

접기

① '-더라', '-더군'

-더라	-더군
·말하는 이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종결어미이다.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단순하게 전달할 때에 사용한다. 예) 철수 씨는 키가 크더라. 이 식당 비빔밥이 정말 맛있더라.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철수 씨는 키가 크더군. 이 식당 비빔밥이 정말 맛있더군요.
·의문사와 함께 쓰여,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해 내기 위해 애쓰면서 혼잣말하듯이 할 때에 사용한다. 예)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o) 어제 갔던 식당이 어디더라? (o)	·의문사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다. 예) 그 사람 이름이 뭐더군? (x) 어제 갔던 식당이 어디더군? (x)
·'요'를 붙여 해요체로 사용할 수 없다.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 시간 걸렸더라요. (x)	·'요'를 붙여 해요체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 시간 걸렸더군요. (o)

- '-더군'과 '-더라'는 선어말어미 '-더-'로 인하여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더군'은 '-더라'보다 감탄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하며, '-더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의미가 두드러질 때에 더 적절하다.
- '-더군'과 '-더라'의 가장 큰 통사적 차이점은 의문사와의 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더군'은 어떤 사실에 대한 감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문사와 같이 쓰이지 못하나, '-더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모르는 대상에 대해 의문사와 같이 쓰인다.

<그림 7> 상세 페이지 하단 유사 문법

<그림 8> 상세 페이지 하단 사용자 의견 보내기

- **항목 비교표**

표제어 별로 토픽/국제표준모형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비교표를 제공한다. 각 항목 비교표는 초급/중급으로 나누어진다.

초급

표제어	범주	토픽	국제표준모형
과1)	조사	초급	초급
과2)	조사	초급	초급
까지	조사	초급	초급
께	조사	초급	초급
께서	조사	초급	초급
도	조사	초급	초급
마다	조사	초급	초급
만	조사	초급	초급
밖에	조사	초급	초급
보다	조사	초급	초급

<그림 9> 항목 비교표

-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

표제어 별로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을 제공한다. 각 항목은 대응 표현/용법과 오류로 기술된다.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

홈 > 가르침터 >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

께서[조사] 초급 토픽 초급 국제 표준모형 초급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상태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높은 사람임을 나타낸다. 문장의 주어가 화자보다 높은 사람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① 대응 표현: 대응 표현 없음.

예) 할아버지께서 주무세요. - 爷爷睡觉.
할머니께서 청소를 하십니다. - 奶奶打扫卫生.
아버지께서 주말마다 등산을 하십니다. - 爸爸每周末爬山.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십니다. - 教授在上课.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는 대응하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사를 생략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할아버지 신문을 읽으십니다. (x)
아버지 주말에도 출근하십니다. (x)

- 높임을 나타내는 '께'와 혼용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그림 10>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

4.2. 설문 조사

4.2.1. 조사 목적 및 조사 방법

문법 · 표현 교육 내용은 한국어교사들이 문법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개발, 축적한 것으로 검색기를 통해 개발된 교육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어교사들을 대상으로 검색기에 대한 설문 조사가 필요했다. 이 설문 조사는 연구팀과 검색 개발팀의 몇 차례의 회의로 결정된 시안을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수정한 후 실시되었다. 개발 일정상 전체 데이터 입력한 후 설문 조사를 수행하기는 어려웠고, 설문 조사의 목적이 교육 내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 데이터가 다 입력된 후 실시할 필요는 없었다.

애초에 설문 조사는 4개의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에서 추천된 20명의 한국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많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심껏 답해 주는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1차 설문 조사로 10월 15일에서 24일까지 메일로 진행되었다. 1차 설문 조사가 진행되는 중 국립국어원에서는 더 많은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국립국어원에서 10월, 11월에 개최한 교사 연수회(공동연수회, 다문화연수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 조사를 실시해 주었다. 연수회 때 설문에 참여한 교사는 57명으로, 1차 설문 조사 인원을 합하면 전체 설문 조사 대상자는 총 77명이다.

설문 조사 문항은 주문항 10문항, 하위 문항 8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번은 검색을 위한 카테고리 분류의 편리성에 대한 질문이다. 시안의 검색 첫 화면은 자모, 등급, 문법 범주 세 가지 방향으로 모두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첫 화면에 검색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하였다. 그리고 편리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를 주관식으로 답하도록 요청하였다. 2번은 문법 범주별 검색 기능의 편리성에 대한 질문이다. 역시 불편하다고 답한 경우는 그 이유를 써 주도록 요청하였다. 3번은 검색 기능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검색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다. 설문 조사의 원래 목적에는 맞지 않지만 카테고리별 만족도 조사를 미리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포함하였다. 4번은 8개의 교육 내용 하위 범주의 배열과 형식이 편리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문법 · 표현 교육 내용의 검색기는 모바일 검색까지 고려하여 개발했기 때문에 다소 긴 교육 내용을 카테고리별로 펼쳐 볼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었다. 그러한 접근 방식이 과연 편리한지 질문한 것이다.

1, 2, 4는 검색 방법과 검색 결과의 형식적인 면에 대한 질문이다. 5번은 검색 결과에 대한 것인데 시안의 검색 결과는 문법 항목을 입력하면 각 필드별로 그 항목이 한 번이라도

들어 있으면 표제어가 검색되고 있었다. 폭넓은 정보를 검색해서 보여 주겠다는 의도로 마련된 것이나 일부 연구원들은 불필요한 정보까지 제공되어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6번은 개발된 문법 · 표현 항목의 등급과 한국어능력시험, 국제표준모형의 등급 간 비교표가 이용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7~9는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과 관련한 설문이다. 연구 보고서에는 문법 항목마다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이 교육 내용 마지막에 기술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 정보의 하위 범주가 세분화되어 있어 복잡할 뿐 아니라 중국인 학습자만을 위한 도움말이 각 항목마다 제시되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시안에서는 이를 따로 메뉴화하였다. 이런 메뉴화의 편리성을 질문한 것이 바로 7번 문항이다. 8번은 검색 방법의 편리성에 대한 질문이고, 9번은 도움말의 구성과 형식에 대한 질문이다.

10번은 검색 시안에 대한 불만족한 점, 추가되었으면 하는 검색 기능 등을 자유로 기술하도록 한 문항이다.

이제까지 설명한 설문 조사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설문 조사 내용

설문 번호	설문 내용	비고
1	검색을 위한 카테고리 분류(등급별, 범주별, 자모순, 통합검색)의 편리성	1-1(편리하지 않다고 답변한 경우 이유)
2	문법 범주별 검색 기능의 편리성	2-1(편리하지 않다고 답변한 경우 이유)
3	검색된 내용의 카테고리에 대한 유용성	5점 척도
4	검색된 카테고리의 배열과 형식의 편리성	4-1(편리하지 않다고 답변한 경우 이유)
5	통합 검색 결과의 만족성	5-1(불만족한 경우 의견 제시)
6	한국어능력시험 및 국제표준모형과의 항목 비교표의 편리성	6-1(편리하지 않다고 답변한 경우 이유)
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의 별도 메뉴화	7-1('아니요'로 답한 경우 이유)
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의 자모순, 등급별 검색 방법	8-1('아니요'로 답한 경우 이유)
9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의 구성과 형식	9-1('아니요'로 답한 경우 이유)
10	불편한 점과 추가할 검색 기능	개방형

4.2.2. 조사 결과

설문 조사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된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사 20명에 대한 설문 조사가 10월에 실시되었고, 국립국어원의 도움으로 공동연수회와 다문화연수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10월과 11월에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2.2.1. 1차 설문조사

· 일시: 10월 15일~10월 24일
· 대상: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사 20명(4개 대학 각 5명씩)

[0] 연령과 교수경력(총 20명)

20대	30대	40대	무응답
3	11	2	4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무응답
8	2	6	4

[1] 검색을 위한 범주 분류가 편리한가?

예	아니요
19(95%)	1(5%)

- 인기검색어가 눈에 띄어 혼동을 줌.
- 등급별 분류와 범주별 분류를 왼쪽 메뉴로 따로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
- 메인 화면의 기본 기능이 검색이라면 첫 페이지에서 등급과 범주를 제시하기보다는 검색 결과로 나오는 것이 편리할 것.

[2] 문법 범주별 검색이 사용자에게 편리한가?

예	아니요
17(85%)	3(15%)

- 메인 화면에 있는 내용과 겹침.
- 기능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표현 문형을 중심으로 정보를 검색할 경우, 범주별 검색을 윗부분에 넣고 자모순 검색이 펼쳐져 있는 것이 유용할 것. 현재와 위치 바꿀 필요가 있음. (2명)

[3] 내용 별 하위 범주의 유용성 정도(5점 척도, 무응답 1명 제외)

표제어	의미와 용법	예문	도입	형태정보	문장구성 정보	제약정보	확장	유사문법
4.67	4.61	4.78	3.97	4.61	4.47	4.78	4.9	4.78

[4] 하위 범주 배열과 형식이 보기에 편리한가?

예	아니요
8(40%)	12(60%)

- 일일이 펼쳐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한 페이지로 볼 수 있으면 좋겠음.(5명)
- 범주가 많아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음.(4명)
  · 문법적인 범주와 교수에 필요한 범주를 구분하고, 각 범주를 묶어서 제시할 것.
- 범주 배열에 문제가 있음.(4명)

① 한국어 수업의 일반적인 문법 정보 제공 순서에 따라(2명)
'표제어-도입-의미와 용법-형태정보/문장구성 정보/제약 정보-유사 문법-확장-예문'
② 한국어 교수자들이 익숙한 문법 사전 형태에 따라
'표제어-의미와 용법-형태 정보/제약 정보-예문(도입)-문장 구성 정보-확장/유사 문법'
③ '도입-의미와 용법-예문-형태 정보-문장 구성 정보-제약 정보-유사 문법-확장'(2명)

[5] 통합 검색 결과가 사용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는가?

예	아니요
15(75%)	5(25%)

- 검색 표제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항목들이 검색되어 불편하고 혼동을 줌.(5명)
- 표제어와 설명만 보고는 필요한 문법 항목을 찾기 어려움. 다른 범주(특히 예문)에서 검색되는 경우 해당 표제어가 들어간 예문을 함께 표시할 필요가 있음.(2명)

[6] 항목비교표가 항목 간 비교에 편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예	아니요
15(75%)	5(25%)

- 개략적인 등급 비교보다 자세한 내용 범주의 비교가 필요함.
- 눈에 잘 띄도록 초급과 중급의 등급 표시를 다르게 할 것.
-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내용을 검색·정렬하고 선택하여 가공(메일 보내기, 출력하기, 게시하기 등)할 수 있도록 필터 기능이 필요함.(3명)

[7]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 유용한가?

예	아니요
13(65%)	7(35%)

- 모든 문법이 중국어와 대응되지는 않아 우려가 됨.

- 별도로 제시하기보다는 검색 내용의 하위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편리함.(3명)
- 다른 언어권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이 추가된다면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 나음.(3명)

[8]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의 자모순, 등급별 검색이 편리한가?

예	아니요
17(85%)	3(15%)

-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통합 검색이 용이함.
- 등급별 제시 형식보다 자모순 제시 형식을 부각시키는 것이 편리함.

[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의 화면 구성과 형식이 편리한가?

예	아니요
18(90%)	2(10%)

- 어려운 한국어로 간단한 의미만 소개되어 있어 수업에 적용하기 어려움.
- 중국인에게 맞춤화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 같음(중국어 대응 표현, 중국인이 오해하기 쉬운 것, 중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등)

[10] 불편하거나 추가로 검색되었으면 하는 점

1) 기존 내용 관련

- 예문의 수가 다소 많음.
- 문법 항목 비교표의 내용과 클릭 후 나타나는 문법 항목의 등급 정보가 다른 경우가 있음.
- 문법 항목 비교표에 한국어 교사들이 사용하는 주요 한국어 교재에서의 등급이 함께 제시되면 유용할 것.
- 중국어와의 대응 표현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명시하고 중국어 문장이 병기되어 있음. 이 때 중국어 번역이 목표 문법 학습에 간섭하거나 부정적 전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2) 내용 추가 관련

-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등장하는 항목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유사 문법과 형태 정보에서 누락된 검색어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문법 활용 시 자주 나타나는 오류 내용이 추가로 제시된다면 유용할 것.(2명)

3) 디자인, 사용자 환경 관련

- 펼치기 기능이 무의미하며, 전체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2명)

- 글 정보가 많아 글자의 크기, 자간, 글꼴을 보기 편한 형태로 바꿔야 함.(4명)
- 조사,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표현 등을 다른 색으로 구분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 '인쇄' 버튼의 색이 다른 것과 같고 진해서 눈에 거슬림(색 변경 혹은 이모티콘으로 대체). 내용 첫 화면에 나오기보다는 펼치기를 했을 때 나오는 것이 나음.(2명)

4) 사이트 구동 관련
-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기 어려움.
- 이미 있는 항목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이 클릭되지 않음.(3명)
- 통합 검색 결과가 너무 많으며, 무의미한 결과 값이 다수 있음.(3명)
- '뒤로'를 클릭하면 전 동작(펼치기 등)으로 돌아감. 문법 항목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함.

4.2.2.2. 2차 설문조사

· 일시: 10월 16일~17일(공동연수회), 11월 2일~6일(다문화 연수회)
· 대상: 공동연수회, 다문화연수회 참가 교사 56명

[0] 연령과 교수경력(총 56명)

30대	40대	50대 이상	무응답
16	13	23	4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무응답
10	6	28	5	7

[1] 검색을 위한 범주 분류가 편리한가?

예	아니요
55(98.21%)	1(1.79%)

- 의미별 검색 기능이 필요함.

[2] 문법 범주별 검색이 사용자에게 편리한가?

예	아니요
53(94.64%)	3(5.36%)

- 범주 학습 경험이 없는 초급 학습자에게 복잡한 느낌을 줌.
- 평소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정도로 범주 나눠야 함.

[3] 내용 별 하위 범주의 유용성 정도(5점 척도, 무응답 31명 제외)

표제어	의미와 용법	예문	도입	형태정보	문장구성 정보	제약정보	확장	유사문법
4.56	4.72	4.8	4.29	4.71	4.67	4.64	4.52	4.6

[4] 하위 범주 배열과 형식이 보기에 편리한가?

예	아니요
48(85.71%)	8(14.29%)

- 하위 범주가 많아 복잡함.(2명)
- ‘펼치기’ 버튼이 따로 있는 것이 불편함.
- 항목별 인쇄 외에 전체 인쇄 기능이 있었으면 함.
- 세로 배열이라 가독성이 떨어짐. 입체형(3*3표)으로 제시했으면 함.(3명)
- 자주 보는 내용, 특히 비교 교수를 위한 유사문법이 먼저 나왔으면 함.

[5] 통합 검색 결과가 사용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는가?

예	아니요
53(94.64%)	3(5.36%)

- 국어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는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 알기 어려움.

[6] 항목비교표가 항목 간 비교에 편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예	아니요
53(94.64%)	3(5.36%)

- ‘고급’ 항목이 필요함.(2명)
- ‘초급’과 ‘중급’의 시각적 구별이 어려움. 색깔을 다르게 하면 좋을 듯.

[7]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 유용한가?

예	아니요
50(89.29%)	6(10.71%)

- 특정 국가만을 배려하는 것 같아 우려됨.(2명)
- 다른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내용이 필요함.(5명)

[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의 자모순, 등급별 검색이 편리한가?

예	아니요
51(91.07%)	5(8.93%)

- 의미에 맞는 문법 항목을 찾기 어려움.
- 중국인을 위한 항목이기 때문에, 중국의 사전 순서가 더 좋을 듯.(A-Z)

[9]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의 화면 구성과 형식이 편리한가?(무응답 1명 제외)

예	아니요
49(89.09%)	6(10.91%)

- 글씨 크기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짐.
- 대응 표현이 없거나 여러 개일 경우 혼란이 우려됨.(2명)
- ‘용법과 오류’ 부분에 중국어가 더 추가될 필요가 있음.
- 말풍선이나 메모 등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각적 자극을 줄 필요가 있음.
- 중급 이상일수록 모국어에 의존하는 것이 학습에 방해가 될 것으로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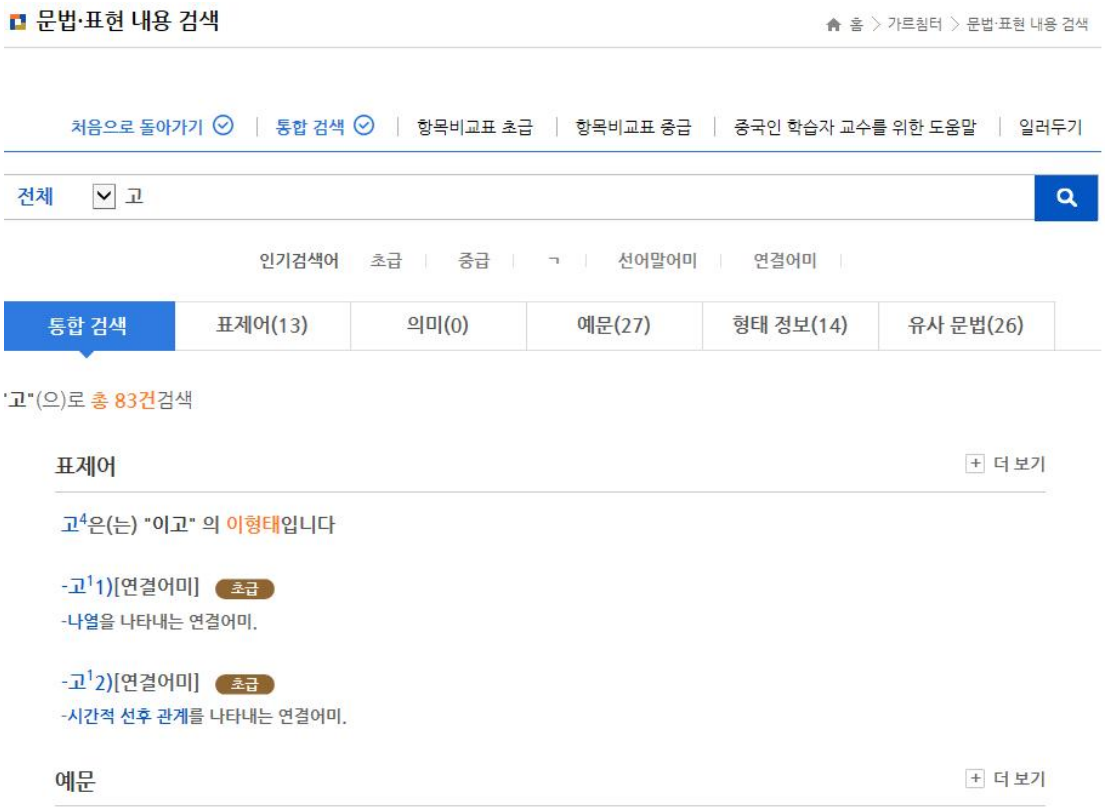
[10] 불편하거나 추가로 검색되었으면 하는 점
- 통합 검색 결과가 너무 많으며, 무의미한 결과 값이 다수 있음.(6명)
- ‘기본’과 ‘심화’로 나누어 첫 화면을 ‘기본’ 위주로 간단하게 구성했으면 함.

4.3. 설문 조사 결과의 반영

4.3.1. 기능 관련

- **검색 튜닝**

기존의 표제어 검색 시 표제어의 ‘-’ 기호를 포함하여 색인되도록 하였으나 검색의 정확성 등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 기호를 제거하고 색인되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이형태 검색 시 기존의 시스템은 기본형만을 검색하였으나 기본형과 이형태를 모두 검색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림 11> 이형태 검색 결과 페이지

- **오류 수정**

토픽 등급, 국제표준모형 등급, 각 페이지 오류 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메인 페이지의 정렬을 재배열하였다.

표현

-게 하다2) -게 되다 -게 하다1) -고 싶어 하다 -고 말다
-고 보다 -고 있다1) -고 싶다 -고 해서 -고 있다2)
-고 나다 -기 위해 -기 전에 -기 때문에 -기로 하다
-나 보다 -나 싶다 -는 대신에2) -는 대신에1) -는 줄
-는 탓에 -는 한 -는 사이에 -는 반면에 -는 만큼2)
-는 만큼1) -는 바람에 -는 김에 -는 대로2) -는 대로1)
-는 동안에 -는 것 -는다거나2 만 같아도 만 아니면
-어 버리다 -어 대다 -어 놓다 -어 가지고2) -어 보다1)
-어 오다 -어 있다 -어 드리다 -어 두다 -어 가다
-어 가지고1) -어 주다 -어 보다2) -어도 되다 -어서인지
-어야겠-2) -어야겠-1) -어야 되다 -어지다1) -어지다2)
에 따라 에 비하여 에 대하여 에 의하면 -으라니2)
-으라니1) -으려고 들다 으로 인하여 -으면 안 되다2)

<그림 12> 메인 페이지 표현 범주 정렬

- **엔터키 검색 기능**

검색어 입력 후 엔터키 입력 시 검색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 **검색 결과 페이지 수정**

검색 항목에 상관없이 검색에 해당하는 표제어와 의미가 출력되었으나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검색 항목에 따라 검색어가 포함된 내용이 최대 260자 출력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 **전체 펼치기 기능 추가**

상세 페이지 내에서 표제어를 클릭할 경우 전체 항목이 펼쳐지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 **전체 인쇄 기능 추가**

상세 페이지에 전체 인쇄 아이콘을 추가하고 페이지 전체 인쇄 기능을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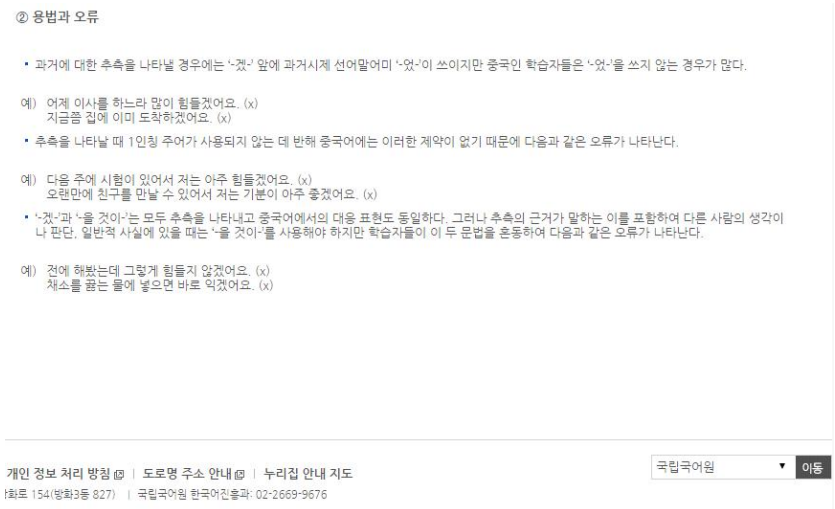
4.3.2. 디자인 관련

- **전체 페이지**

각 기능을 좌측 메뉴가 아닌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였다.

-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 페이지**

화면 구성 시 하단 공백에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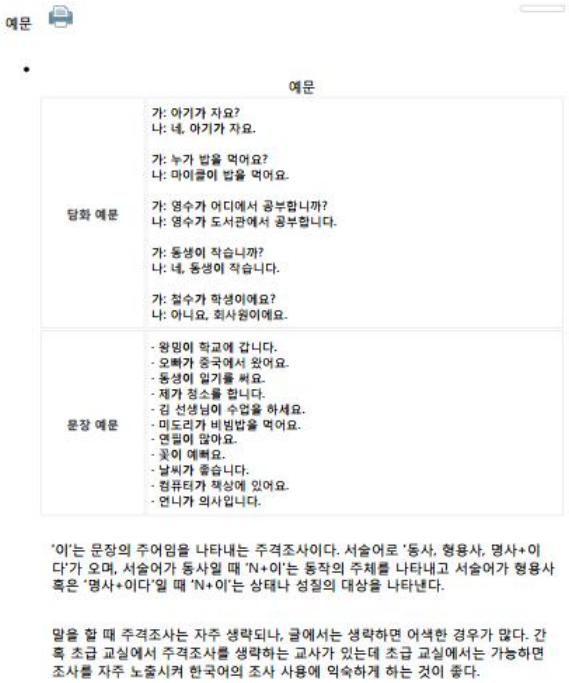
<그림 13> 수정된 중국인 학습자 교수를 위한 도움말

- **상세 페이지**

각 항목의 내용이 없을 경우 펼치기/접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며 인쇄 표시를 아이콘으로 변경하고 위치를 변경하였다.

- **인쇄 페이지**

인쇄 페이지에서 '접기' 표시를 삭제하였다.



예문

예문

담화 예문	가: 아기가 자요? 나: 네, 아기가 자요. 가: 누가 밥을 먹어요? 나: 마이클이 밥을 먹어요. 가: 영수가 어디에서 공부합니까? 나: 영수가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가: 동생이 작습니까? 나: 네, 동생이 작습니다. 가: 철수가 학생이에요? 나: 아니요, 회사원이에요.
문장 예문	- 왕밍이 학교에 갑니다. - 오빠가 중국에서 왔어요. - 동생이 일기를 써요. - 제가 청소를 합니다. - 김 선생님이 수업을 하세요. - 미도리가 비빔밥을 먹어요. - 연필이 많아요. - 꽃이 예뻐요. - 날씨가 좋습니다. - 컴퓨터가 책상에 있어요. - 언니가 의사입니다.

'이'는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이다. 서술어로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가 오며, 서술어가 동사일 때 'N+이'는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고 서술어가 형용사 혹은 '명사+이다'일 때 'N+이'는 상태나 성질의 대상을 나타낸다.

말을 할 때 주격조사는 자주 생략되나, 글에서는 생략하면 어색한 경우가 많다. 간혹 초급 교실에서 주격조사를 생략하는 교사가 있는데 초급 교실에서는 가능하면 조사를 자주 노출시켜 한국어의 조사 사용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림 14> 인쇄 페이지

- **말풍선**

메인 페이지의 말풍선 크기를 수정하고, 가로 크기에 제한을 두어 다른 항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 **등급 색깔 변경**

파란색으로 되어 있던 기존의 등급 아이콘 색깔을 수정된 메인 페이지에 맞추어 주황색 톤으로 변경하였다.

제5장 연구의 의의와 과제

5.1. 연구의 의의

'한국어교육 문법 · 표현 교육 내용 연구'는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물을 집적하여 한국어교사들이 학습자를 교수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이미 이전 단계에서 기술된 바 있으나 다시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언어 정보, 교육 정보를 정리한 충실한 교수 자료 마련**

본 연구는 문법·표현 항목에 대한 교육 내용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기술하여 한국어교육 문법의 기초 자료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한국어 교수자나 연구자, 교재 개발자, 그리고 학습자가 교육, 연구, 교재 개발, 학습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실한 참조 자료의 역할을 할 것이다.

- **교육 현장의 요구 및 경험이 반영된 결과물**

본 연구에는 교육 현장 경험이 1년~3년 이하인 초보 교사들의 요구와 3년 이상의 경력 교사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제성과 연구의 정확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장 교사들의 요구 분석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한국어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는 연구 결과물이 한국어 문법·표현 교육을 위한 실용적인 참조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법·표현 항목 정련과 개별 문법·표현 항목의 내용 기술에는 그간 국어학과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가 반영되었으며, 코퍼스 언어학의 방법론이 적용된 교재 말뭉치를 활용하고, 한국어교육 현장의 교수 경험을 통해 교수·학습에 효과적인 예문을 엄선하고 학습자의 전형적인 오류 정보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언어학적 연구 결과물들을 모두 반영하여 교수·학습에 필요한 대조언어학적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인접 학문 분야의 성과를 모두 반영하여 구축된 다양한 언어적, 교육적 정보는 현장 교수자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하며 연구자들에게도 문법·표현 교육 내용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2」, 「국제통용 표준 모형」의 계승·발전**

본 연구는 사업은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 외에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 2011)에서 마련된 수준별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항목의 기

본 틀을 토대로 하고,「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1, 2」(2005)의 개발 이후 지금껏 학계와 교육 현장에 축적된 연구 결과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용 문법·표현 항목의 내용을 개발함으로써 이전 사업의 성과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를 통합적으로 보완하고 그 내용들을 실제 교육 현장에 맞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받아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용 문법·표현 항목을 선정하고 위계화한 초급 문법·표현 항목을 보다 정교하게 체계화하여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수자에게 한국어 문법·표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전 사업의 결과물에 더하여 중급 문법·표현 항목을 보다 정교하게 체계화하여 정련하였다.

5.2.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안

'한국어교육 문법 · 표현 교육 내용 연구'는 4년 동안 진행된 사업으로 올해는 그동안 개발된 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내용을 보완한 후 인터넷을 통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를 개발하여 이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한국어교수학습샘터에 탑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단계 사업 보고서부터 다음해 과제를 제시하고 이 주제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기술한 바 있는데 과제 및 정책 제안의 내용이 거시적 차원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크게 내용이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전에 기술된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과제 및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5.2.1. 향후 과제

- **등급별 문법·표현 항목의 한국어교육에의 적용**

1~3단계 사업을 통해 초급과 중급의 문법·표현 항목을 선정하고 정련한 바 있다.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 2011)과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문법·표현 항목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조금 더 쉬운 초급, 중급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목표로 항목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된 항목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정부나 학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 결과물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여 이제까지 나온 연구 결과물을 수정, 보완하여 교사나 학습자들이 교수나 학습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급 문법·표현 항목의 선정 및 정련**

앞에서 말한 급별 문법 · 표현 항목이 한국어능력시험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급 문법 · 표현 항목을 선정하고 정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어교육의 체계화와 연구 내용의 집적, 경

험의 축적으로 표준적인 문법·표현 항목의 정련이 가능하리라 본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결과물과 본 사업의 결과물을 기초로 학계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단계별로 문법·표현 항목을 선정하고 항목을 정련하여 그 결과를 교사와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한·중 대조 체계화 및 다른 언어와의 대조 연구**

1~3단계 작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어교육적 관점에서 한·중 문법 대조를 연구하는 인력이 생각보다 풍부하지 않고, 연구 방법론 또한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중국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를 위해 한국어와 외국어 대조에 기초한 용법적 오류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교수를 위한 지침 내지는 유의점 등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숨어있는 연구 인력을 발굴하고, 언어권별 대조 연구 결과물을 집적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조 연구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어 문법교육의 내용을 풍부히 하기 위해 중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와 같은 주요 언어와 한국인 학습자가 많아지고 있는 베트남어, 말레이어 등 동남아시아 언어와의 대조 연구를 통해 이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키고 연구자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업 내용의 확장을 위한 요구 조사**

문법·표현 항목의 기술 내용은 사업 초반에는 초보 교사들을 대상으로 쉬운 설명 위주로 추진되다가 사업 중반에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주요 방향이 변경되었다. 초보 교사 중심의 문법 내용 개발 연구는 1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 이와 같이 사업 방향이 변경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사업은 필요자들의 요구가 다양하다. 앞으로 한국어교육 문법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장, 심화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사용할 당사자들의 요구 조사가 미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2.2. 정책 제안

본 연구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5.2.1.에서 기술하였으므로 이 절에서는 한국어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2013년, 2014년 보고서에 기술한 정책 제안과 일치한다.

첫째,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구와 자료 구축이 좀 더 심층적으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사실 그동안 한국어교육은 놀랄 정도로 양적, 질적 향상을 거듭해 왔다. 2013년에 간행된 「한국어교육 연구의 현황」(한재영 저, 신구문화사)에 따르면 1969년부터 2013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7,380여 편에 이른다. 1969년부터 조사된 이 저작물에 따르면 2011년, 2012년에는 한국어교육 논문이 각각 1,285편, 1,223편에 이른다. 그리고 논문의 성격

에 따라 보면 간행물 논문이 4,044편, 석사 학위 논문이 3,143편에 이른다. 세부적 주제에 따라 보면 문법 교육이 1,509편, 어휘 교육이 1,118편, 교재론 808편, 대조언어학 668편, 문화교육 592편, 교수법 546편, 학습자 513편, 발음(음성, 음운론) 459편, 다문화(여성결혼이민자, 방언) 449편 순이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수행하며 찾아본 문법 교육에 대한 논저들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으나 부족한 점도 적지 않았다. 그 이유는 논저들의 주제가 중복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위에서 언급한 상위의 한국어교육 연구 주제는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연구 목표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발음, 어휘, 문법 교육 등 기본적인 언어 지식 교육과 교재론, 교수법 등 실제 교육에 필요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는 그만큼 이 영역의 연구가 중요함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분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향후 과제에서도 지적한 '단계별 문법 항목 선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본 연구에서 힘들여 작업했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연구가 그 한 예가 된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국가 주도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대형 프로젝트로 수행하거나('단계별 문법 항목 선정'), 관련 연구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장기 프로젝트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유사 문법 항목')

다음은 연구의 다각화에 대한 제안이다. 앞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는 연구 주제는, - 총론 등 개괄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학습 목적별 연구 195편, 언어습득/이중언어 33편, 교사 양성 134편, 구어 137편, 문어 28편, 화행/담화 157편, 사례 연구 70편 등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가 좀더 활성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언어습득이나 이중언어 연구는 역시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연구이며, 화행/담화, 사례 연구 등은 교실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오랜 관찰 시간이 필요한 연구 주제이다. 이 외에도 표현과 이해 영역을 비교해 보면 표현보다 이해 영역(201편:35편)의 비중이 낮고 4가지 기능 영역을 보면 쓰기가 319편으로 가장 많고, 읽기(245편), 말하기(171편), 듣기(98편)으로 말하기, 듣기 즉 구어와 관련한 기능 영역의 논저가 적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쓰기 관련 연구물이 많지만 실제로 쓰기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자료는 교재 외에는 부족하며, 이는 읽기, 말하기, 듣기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요약하면 한국어교육 연구에 기초한 교육 자료 구축을 위해 질적 연구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나온 연구 업적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둘째, 교실 상황에 맞는 교육 자료 개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첫째 제안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하며 알게 된 점은 같은 대학 부설 교육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기관별, 학습자별 변인에 따라 교육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어떤 좋은 교육 자료가 만들어져도 교사가 이를 학습자나 교육 환경에 따라 가공하여 쓸 능력이 없으면 불필요하거나 불완전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층적 연구와 연구 결과물의 축적, 가공도 중요하지만 이를 교실 상황에 맞게 운용해서 쓸 수 있는 교사의 양성과 교사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교육 이전에 충분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자녀, 여성 결혼 이민자, 세종학당 학습자, 재외 동포 등을 위한 교재가 개발되어 나온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1, 2」의 보완 필요성에 근거하여 수행된 본 사업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위의 교재들의 부족한 점과 보완점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은 바로 교실 상황에 맞는 교육 자료 개발과 같은 이야기다. 이를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은 교육 여건이 안 좋은 학습자 100명 이하의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을 하여 그 기관에 맞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 대학의 한국어교육 기관은 국제화 지수를 높이기 위해 또는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여러 곳에 생겨났다. 그러나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한국어교육을 해서 얻은 수익이 교육에 투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1000만원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그만큼의 재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국어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물론 사업의 내용은 교실 상황에 맞는 교육 자료의 개발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정부는 질 높은 한국어교육을 위해 교사 자격 제도와 교육 기관 인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는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기관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한편으로 교육의 일방화, 획일화를 조장하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 다양한 학습자, 학습 목적, 기관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교사와 연구자가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마련을 제안한다. 최근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가 전격 가동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 학당에는 교육 자료는 많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교사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은 없는 것 같다. 주로 개인적 공간(주로 블로그나 카페)을 통해 교사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다. 가르치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질문을 올리고 그러면 다른 교사가 답을 하고 논의하는 방식의 공간을 국가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공간을 통해 국가 기관은 이미 수행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를 거름 장치 없이 들을 수 있고, 연구 개발 자료에 대한 선호도 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간접적 방법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국립국어원에서 출간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면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자료 이용 건수만 나올 뿐이지 주관적 반응은 알 수 없다. 몇몇 연구자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간을 마련하여 모니터를 통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회원들끼리는 경험을 공유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좋다. 물론 처음에는 인터넷 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냥 만들어만 놓고는 아무런 반응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의 결과물인 '한국어 문법·표현 교육 내용' 검색기와 또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2012~2015)의 결과물인 '어휘 내용 개발'의 검색기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 보면 좋겠다. 물론 의견을 낸 사람들에게는 국어원에서 나온 자료를 나누어 주는 등의 보상책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의 초, 중, 고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을 제안한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미국의 초, 중, 고 학생들 중에 한국어를 취미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현재 많지 않으며, 특히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교사는

매우 적다. 한국어교사 양성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지 기관을 만들어 이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그중에는 교포가 상당수이다.)에게 교육과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성인들에게만 한국어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도 한국어를 학원에서 배우거나 혼자 드라마 등을 보며 배우는 학생들이 많다. 가능하다면 각국에 설립되어 있는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국가의 초, 중, 고 학생들의 학습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현지에서 그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가진 교사와 국내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초, 중, 고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연구는 한국어의 외연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가능하겠지만 크게 이 네 가지를 제안한다. 앞의 세 가지는 이미 이전 보고서에서도 제안했었고 일부는 정책으로 입안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어교육계는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였다. 교육 내용 면에서도 진지한 연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학습 면에서도 게임화 이론을 적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등 새로운 이론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빠른 속도로 모든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에 치우치거나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것에 소홀한 면이 적지 않다.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교육 내용은 많은 면이 부족하지만 연구의 기초 자료를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연구자,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Development Review of Grammar and Expression Conten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urth Stage)

This book is the result of the fourth stage 'development research on grammar and expression content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part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tent research' carried out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in 2012. This paper briefly introduces the achievements of the project made from 2012 to 2014 as well as an overview of 2015 project and policy suggestions.

The first stage research in 2012 performed three research tasks as follows: establishing the grading standards of grammar and expression items; developing the technical aspects of grammar and expression education contents; and conducting a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language and Mongolian language on basic grammar level. The second stage of the research was devoted to refining basic grammar and expression items that had been selected in the first stage, and describing grammar education content of basic grammar and expression items. The third stage aimed at refining intermediate grammar and expression items that had been selected in the second stage, and describing educational content of intermediate grammar and expression items.

The selection of grammar and expression items by level as the first task of the project was undertaken based on items of "internationally used Korean language standard model development (2011)" perform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while considering the items of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C). When the items of these two sources did not match, they were graded based on the frequency of corpus annotation of the Korean language (Sejong corpus annotation frequency), and the practicality of teaching and learning (degree of overlapping content). In this process, it was suggested that alternant (변이형) and associated forms (관련형) should be classified into a single item. Here, alternant (변이형) refers to morphologically different forms (형태적 이형태), and associated forms (관련형) refers to items that are more efficiently learned when they are presented together (e.g. '*-eulssu itdda* (을 수 있다)' and '*-eulssu updda* (을 수 없다)'). As a result, 89 basic grammar items (92 items were described), and 113 intermediate grammar items were selected. The number is slightly smaller than that of existing TOPIK, and the items contain basic and intermediate grammar expressions that are easier than the current items.

In order to prepare technical aspects of grammar and expression content as the second

task, grammar books of foreign languages were analyz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Korean language teachers to obtain eight types of educational information necessary for teaching such as ‘meaning and usage, examples, introduction, morphological information, sentence formation information, constraints, expansion, similar grammar’, which can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goal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third task of the project is a comparative linguistic analysis. Comparative study explains an interlingual interference of foreign language learners, and predicts errors ahead of teaching and learning, thereby contributes to the efficient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 first stage performed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hinese and Mongolian languages in terms of basic grammar categories. The second stage, due to limited budget and manpower, was reduced to describing helpful comments for Chinese learners.

As the project ends in 2016, it aimed at developing a search engine so that users can search for educational content of basic and intermediate grammar and expression that have been developed so far, over the Internet or mobile devices. In this process, wrong descriptions or statements that do not correspond to the general scheme were corrected and grammar of words with similar functions and helpful comments for Chinese learners were examined, modified, and added.

Despite many weaknesses, we hope that these research findings can be widely utilized and applied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fields as a baseline data for future research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Study of conten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mmar and expressions, Grading, Grammar of words with similar functions, Comparative linguistics

연구 책임자: 양 명 희 (중앙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원: 이 선 웅 (경희대학교, 교수)
이 성 도 (산동대학교, 교수)
고 홍 희 (산동대학교, 교수)
이 지 용 (중앙대학교, 강사)
김 지 연 (중앙대학교, 강사)
박 미 은 (대진대학교, 강사)
이 나 래 (국립국어원 담당 연구원)
연구 보조원: 주 재 훈 (중앙대학교, 석사과정)
안 예 림 (중앙대학교, 석사과정)
검색기 개발: 이 종 훈 (다이퀘스트)
신 누 리 (다이퀘스트)
담당 연구원: 이 나 래 (국립국어원 담당 연구원)
허 은 (국립국어원 연구원)

한국어교육 문법 · 표현 내용 개발 연구(4단계)

발 행 인 송 철 의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길 148(방화 3동 827)
전화: 02-2669-9723 전송: 02-2669-9727

인 쇄 일 2015년 12월 11일

발 행 일 2015년 12월 11일

인 쇄 유일문화사